

2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43.12	↑ 코스닥	772.84
	(+41.56)		(+33.61)
↓ 금리 (미국 9년)	3.979	↓ 환율 (원-달러)	1342.90
	(-0.092)		(-14.40)

metro® 경제

美 기준금리 동결
한미 금리격차
2%p 유지
03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K항공 빅딜' 9부 능선 넘었다

이사회 '화물사업 매각' 가결 고용유지·처우개선 등 담보 대한항공, 아시아나CB 상환 EU 집행위 통과 가능성 높아



아시아나항공이 2일 서울 모처에서 임시 이사회를 재개해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양사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분리 매각이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면서다. 이에 대한항공은 화물사업 매각 시 인수하는 측이 직원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담보하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내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 없이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사내이사인 원유석 대표와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4명의 사외이사가 참석했다.

사내이사였던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은 지난 30일 이사회 직전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데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참석 이사 5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1명으

로 해당 안건이 가결처리됐다. 이사 1명은 논의도중 퇴장하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EU 집행위의 심사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기업결합의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규모 자금 지원과 화물사업 고용 승계·유지 등을 약속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신규 영구전환사채(CB)를 취득키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마련한 아시아나항공 재무지원 방안 중 하나다. 양사가 체결한 자금 지원 합의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이 취득한 기존 3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CB는 전액 상환한다. 금리도 기존 7.2%에서 4.2%로 하향했다.

또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이후 E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때까지 7000억원 규모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키로 제한했다. 인수계약금 3000억 원 중 1500억원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한다. 기업결합 여부와 관계 없이 변제가 필요 없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대상 ▲조경혁신상 ▲에코단지상 ▲스마트환경상 ▲테마조경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인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3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소개된 30여곳 입주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심사방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 수상 명 : 대상 조경혁신상 에코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등
- ◆ 수상작 선정 : 11월 28일



尹대통령, 독점적 행위 지적에 카카오택시, 수수료 개편 착수

尹 "카카오택시 횡포 부도덕" 카카오모빌리티, 의견 수렴 택시기사 긴급 간담회 추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행위를 질책한 직후에 내놓은 것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일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른 시일 안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질타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외부 의견을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고민

을 거듭해 왔다"면서 "업계를 비롯한 국민 목소리와 질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택시기사님들, 승객, 정부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가맹택시 수수료는 운행 매출의 20%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가맹택시 업계 경쟁사인 우티(2.5%)와 비교하면 0.5~2.5% 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독과점 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가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배차 쿨을 끊는 등 '쿨 차단'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m-커버스토리

정부 재정 비상... 긴축 통해 약자복지 집중 투자

2024 예산안

소비자물가 3.8% 상승 중앙정부 채무 1100조 60조 대규모 세수 결손 재정 효율적 운용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시민들을 만나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을 꿰뚫는 말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알뜰재정·살뜰민생'이다. <관련기사 4면> 올해도 경기가 침체된 것은 지표를 통해 나타난다. 국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예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1.4%로 전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 국회 예산정책처도 1.1%를 예상하는 등 모두 1% 초반대 경제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 역시 심상찮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기록한 뒤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 7월에는 2.3%까지 낮아졌지만, 8월(3.4%)과 9월(3.7%) 계속 상승하면서 석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 1000억원 증가한 110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1033조 4000억원)과 비교해선 76조 5000억원 순증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함께 제시

한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 7000억원)보다 8조 3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아울러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조 1000억원 감소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총지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조 2000억원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기반한 것이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제박람회기구' 본부 파리 방문... 부산박람회 유치 총력전
▲ 안철수, 혁신위에 "건강한 당정관계 확립 언급 없어" 비판 /사진 뉴시스

▲ 이재명, 여 '메가서울' 추진에 "국정장난 아니냐... 신중한 접근"
▲ 통일부 "북, 긴급 상황 조치 가능토록 연락채널 정상화 촉구"



▲ 경제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노란 봉투법 멈춰달라" /사진 뉴시스
▲ '김포 등 중소도시 서울 편입' 반대 58.6%... 찬성 31.5%

우리나라 인구 8년9개월 來 최소 지난달 1만명대 줄어 총 5135만명

행안부, 10월 전월비 1만5775명 ↓
2만346명 출생, 3만2510명 사망
이달 서울인구 930만명대 전망

올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앞지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구 감소세가 2019년 12월부터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국가 인구는 8년9개월 사이 최소를 기록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는 5135만 명으로, 전월 대비 1만5775명 줄어 들었다. 이는 올해 들어 첫 1만 명대 감소인 데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1개월 새 최대 감소폭이다.

가파른 내림세 속에 국내 거주민 수는 8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말 인구(5135만4226명)는 2015년 1월(5134만2881명) 아래로 가장 적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2만346명인 데 반해 사망자 수는 3만2510명으로 자연감소분에 내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포기 등이 반영된다.

17개 주요 시·도별로, 서울(-7291명)이 전국 인구 감소분에 크게 기여했다. 부산(-2623명)이 그 뒤를 이었고 경북(-1839명), 경남(-1770명), 전남(-1472명), 전북(-1366명), 광주(-1239명) 등의 순이다. 거주민 수는 경



지난 1962년 서울 영등포-김포공항 간 국도연장 준공식의 모습. /국가기록원

기와 인천, 세종, 충남 등 4곳에서만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0월 말 기준 940만249명까지 떨어진 서울 인구는 11월에 930만 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1980년대 초반 수준까지 회귀했다. 서울은 2016년 5월에 1000만 선이 무너진 이후 전국 거주민 수의 거침없는 내림세를 견인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40대 인구(795만 명)가 60대(762만 명)에 추월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진입으로 60~69세 인구는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불어났다.

50대(864만 명) 비중이 가장 크고, 40대와 60대가 각각 2, 3위였다. 이어 30대(658만 명)와 20대(623만 명), 10대(466만 명)가 뒤를 이었다. 0~9세(336만 명)는 70대(394만 명)보다 적었다. 또 80대가 203만 명으로 전체 인

구의 4%가량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 평균연령은 44.7세로 집계됐다. 전남 거주민이 48.5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세종이 38.5세로 가장 젊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일본(11.6%)을 사상 처음 제치고 인구 대비 '아이들이 가장 적은 국가'가 됐다.

이 부문에서 남아공(28.1%)과 이스라엘(27.8%), 인도(25.3%) 등이 유소년 비중이 컸다.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17.3%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취약계층에 에너지요금 최대 59만원 지원

산업부, 난방비 지원·에너지 절감 대책
등유바우처·연탄쿠폰 지원액 확대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14.8만원으로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가스요금은 4개월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올 겨울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신규 추가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 등은 지난 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을 포괄해 동절기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은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 LP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의 세대당 지원금액을 각각 64만1000원, 54만6000원으로 확대하고,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은 올해 12만대에서 내년 14만8000대로, 주택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지원은 올해 3만4300가구에서 3만6000가구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올해 2만9000대에서 내년 6만40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국 6만8000곳의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약 2만개소

의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는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 홍보하는 한편,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절약 캠페인도 추진한다.

한편, 국제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기준 지난 5월 배럴 당 75.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10월 89.8달러까지 치솟았다. 가스가격 역시 같은 기간 MMbtu 당 9.8달러에서 15.8달러로 올랐다.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복합 경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은행의 '원자재 시장전망'에 따르면 중동분쟁 확대시 국제유가는 최대 배럴당 157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은 39.6%(+40.4원/kWh), 가스요금은 45.8%(+6.51원/MJ) 인상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국토교통부, 내년 1월부터 시행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번호판은 한 눈에 식별 가능한 연두색으로 정했다. 적용 시점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이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다.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번 전용번호판 도입은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다. /뉴시스



"이웃과 '사랑의 김치' 나눠요"

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노·사 김장 한마당'에서 공사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들 150세대에 10kg씩 전달된다. /뉴시스

EU 심사 승인땐 美·日 허가 수월할 듯

>> 1면 '아시아항공 화물사업'서 계속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엔데믹 이후 화물사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재무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화되는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인수 주체인 당사의 재무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3년 전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한국 등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현재 EU, 미국, 일본의 심사 결과만 남겨두고 있다. EU가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하면 합병후 여객·화물 노선 독점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합병에 대한 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DOJ)에 합병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대체 항공사로 에어프레미아를 앞세우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에 미

국 법무부가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돈 이후 조원태 회장과 미 법무부 차관 등이 면담을 실시했고 이 자리에서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항공사를 찾아오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 차원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국제선에 처음 취항한 이후 현재까지 미주를 비롯해 유럽, 동남아, 일본 등의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 노선 중 시애틀과 하와이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을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쟁당국 심사도 중북 노선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합병 승인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는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만큼 일부 노선 및 슬롯 반납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안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초 심사를 종결 짓는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합의하면서 양사 합병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韓-美, 2%p 금리격차 유지... 국채·시중 잠재리스크 '축각'

美 기준금리 동결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집중
파월 의장 "금리인하 고려치 않아"

韓 국채금리, 美 동조화 현상 보여
한은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물가가 서서히 둔화하고 있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기준금리 인상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커 향후 잠재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은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 5월까지 5%포인트(p)를 인상한 뒤 6월 동결, 7월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았다. 이후 9월에 결정한 동결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美 "기준금리 인하 고려 안해"

연준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가장 먼저 물가 둔화가 꼽힌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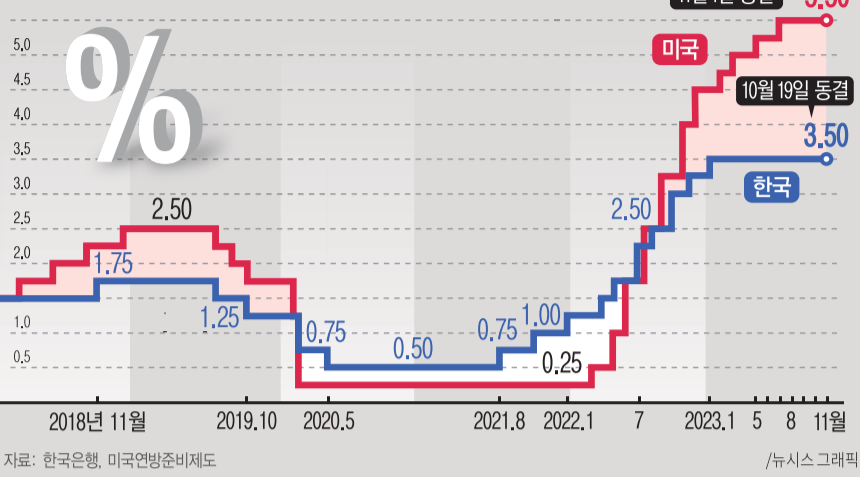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 워싱턴 연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표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6.8%에서 지난 9월 3.4%까지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같은 기간 9.1%에서 3.7%로 하락했다.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하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 지난달 19일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장기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조달금리가 커지고,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이 오르는 등 기준금리 추가인상 효과를 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장기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8%까지 오르는 등 금융여건이 긴축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장기 국채 금리 인상을 불러

한미 금리 격차



왔다는 완벽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변동성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금리가 올랐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2월까지 동결이 이어지면 정점에 도달했다고 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파월의장은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 현 기준금리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라며 "금리를 동결한 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 현재 금리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韓, 역대 최대 금리격차 지속

미국의 금리동결 결정으로 한국과의

금리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2%p를 이어나가게 됐다.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원달러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스라엘·하마스간 사태로 10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90.5달러로, 지난 7월 80.5달러와 비교해 10달러가량 올랐다. 국제유가상승과 맞물리며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에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시장금리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채 금리는 한국 국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국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동조화)을 보인다. 특히 채권의

만기 기간이 길수록 동조화가 강하다. 이날 오전 5년만기 국채금리는 4.043%로 3개월전인 3.711%보다 0.332%p 높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국채금리 불안이 시중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4분기 고금리예금 만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신경쟁심화로 대출금리가 추가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6조119억원으로 전달대비 3조6825억원 늘었다. 금리상승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대출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626조6173억원)은 전달 대비 3조2771억원, 대기업 대출(137조2992억원)은 4조3086억원 늘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완화됐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을 위한 긴축기조 유지 필요성(고금리 장기화)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불확실성 요인이 국내의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은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 키워야"

전체 인구 절반 수도권 집중
자연증감 아닌 청년층 이동 증가
"규모보다 특화 통해 경쟁력 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출산율 감소가 향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6%는 국토 11.8%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사망 등 자연증감이 아닌 청년층(15~34세)을 중심으로 지역간 이동이 증가한 탓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은 기대소득과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2015년 34만원에서 2021년 53만원으로 벌어졌다. 고용률도 같은 기간 3.8%포인트(p)에서 6.7%p로 벌어졌다.

개인특성을 보면 여성이거나 부모의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으면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후 수도권 이동 확률도 높았다. 여성이면 대졸후 비수도권 잔류 대신 수도권 이동 확률이 7% 상승했고 부모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동 확률이 19% 올랐다. 아버지가 대학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원율 이상이면 36% 상승했다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 수도권은 '경쟁 치열'...출산율 감소

보고서는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비수도권의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수도권의 출산율을 지연시켜 전체적인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가 먼저 이뤄져 출산율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1년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0.76명, 광역시 0.81명, 도지역 0.94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유출로 비수도권의 출산손실은 2021년 기준 호남권 1만2000명, 동남권 7900명, 대경권 72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전체 출생아수의 49.7%, 21.9%, 31.6%에 달했다.

◆거점도시 균형발전시, 전국인구 50만명 증가

이에 따라 보고서는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제공을 위해 권역별 거점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도시보다 도지역에서 수도권 이동 성향이 훨씬 강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고성장하기 어려운 점, 비수도권의 방사형 도로망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은 줄고, 거점도시로 이동이 증가하면 30년 후인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절반아래(49.2%)로 하락했다.

거점도시에서 수도권 이동이 현재의 10%로 줄고, 거점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중 절반이 거점도시 이동을 가정한 경우다. 전국 인구는 약 50만명 증가했다.

반면, 현재의 이동추세가 지속된다면 가정 하에서는 현대 50.6%인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53년 53.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은은 주요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하고, 거점도시와 인접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 활성화하고 권역내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점도시마다 집적할 인프라 및 산업 등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거점도시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 도모하고, 중소도시의 인프라는 규모보다 특화로 경쟁력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소비자물가 3.8% ↑... 유가 등 불확실성 영향

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7월 이후 지속 상승세... 오름폭 커져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8% 상승하며 오름폭이 3개월 연속으로 확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향후 물가와 관련해 대외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8%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 8월(3.4%), 9월(3.7%)에 이어 10월까지 3개월째 확대되는 흐름이다. 또 상승폭이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7.3% 올랐다. 곡물과 과실이 각각 12.8%, 25.8% 치솟으며 농산물 물가가 13.5% 상승했다.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사이 최대 상승폭이다. 주로 사과(72.4%)와 상추(40.7%), 토마토(22.8%), 굴(16.2%), 쌀(19.1%)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수산물 가격은 3.0% 상승했다. 굴(-6.6%), 전복(-6.7%) 등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오징어(15.6%)와 고등어(5.7%) 등이 올랐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0.1% 하락했다. 닭고기 가격이 13.2% 올랐으나 국산 쇠고기(-3.1%), 수입 쇠고기(-0.1%), 돼지고기(-0.2%) 값이 모두 내렸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가격 오름 조짐은 없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공업제품은 3.5% 상승했다. 아이스크림(15.2%), 우유(14.3%), 빵(5.5%) 등의 가격이 오르며 가공식품은 4.9% 상승했다. 휘발유(6.9%)는 올랐으나 경유(-7.9%), 자동차용 LPG(-11.8%), 등유(-9.8%)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석유류 물가는 1.3% 내려갔다. 다만 하락폭은 9월(-4.9%)보다 축소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료(14.0%)와 도시가스(5.6%), 상수도료(4.6%) 등 전기·가스·수도는 9.6% 올랐다. 지난해 10월 요금인상 기저효과로 전월(1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2% 상승했다. 유치원 납입금(-9.7%), 국제항공료(-4.0%)는 내려갔으나 시내버스료(11.3%)와 택시료(20.0%) 상승폭이 컸다. 외식물가와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각각 4.8%, 3.7%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향후 물가에 대해 "국제유가 및 환율 등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與 “건전재정, 기본” vs 野 “소극적 운용, 악영향”

2024 예산안

2023년 11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2024년도 예산안 역시 경제 위기감을 감안해서 ‘긴축 재정’(혹은 건전 재정) 기조로 편성됐다.

그러나 3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여야는 긴축 재정의 당위성,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충돌 중이다. 여당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기존 정부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건전 재정 흔들림 없이 유지”...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제기

정부는 지난 9월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총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가채무 증가폭을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국가채무 증가폭 축소 등 건전성 강화 사회복지 예산 8.7% ↑, R&D 16.6% ↓ 정부 “재정 체질 개선하는 데 중점”

예산정책처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 침체 상황에 재정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국세수입 등 재정수입 부진도 장기화되므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현 시점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한국 경기 부양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건전 재정을 찬성했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재정중독의 치유와 효율적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힘 써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예산 8.7% 증가한 반면 R&D는 16.6% 삭감

정부 예산의 분야별 재정 편성 내역을 보면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더 크게 증가한 부문은 사회복지(8.7%), 국방(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9%) 교통 및 물류(4.6%), 농림수산(4.1%), 통신(3.4%), 국토 및 지역개발(4.7%), 통일·외교(19.5%) 부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206조에서 224조로, 순증액이 18조원(8.7%) 규모로 증가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와 취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국회의원, 여야 지도부, 5부요인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된 결과다. 이에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했고,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추가로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하고,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은 연구개발(R&D) 분야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이 줄어든 25조9000억원이 됐다. 정부는 “그간 R&D 투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며 “도전과제 대신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이 난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R&D 예산 삭감은 지난 6월 열린 국가 재정전략회의 당시 예고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9월 국회에 제출된 예산에서 R&D 분야의 대폭 삭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과학계는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시정연설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R&D 예산 삭감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4년 R&D 예산 합리화는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안”이라면서 “그간 투입된 정부의 R&D 지출 성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R&D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천승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도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이번 정부의 R&D

예산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삭감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연구 지원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지 바란다”고 지적했다.

◆與 “구조조정 통해 약자에게 써” vs 野 “정부 역할 확대해야”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자체’를 선언하며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예산 정국 앞에서 신사협정이 지켜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국가 R&D 예산 삭감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긴축 재정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시각차는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R&D 예산 삭감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썼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구

조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많은 선진국이 재정 확충을 통해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긴축적 통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이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도그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팽팽한 싸움은 다음날인 2일에도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물가안정과 민생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며 “국가재정은 무한한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與 野 ‘충돌’ 與 “불요불급 줄여 약자에 써야” 野 “경제위기 상황서 지출 늘려야”

이같이 여야가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기한을 훌쩍 넘겨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야의 갈등이 지난해만큼 첨예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는 민주당사압수색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뿐 아니라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대통령과 만나 주요 현안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고, 총선도 앞두고 있어 지난해처럼 극한 대치를 이어가진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성장동력·경제활력 제고 등 ‘4대 중점’

>> 1면 ‘정부 재정 비상’서 계속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약자복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게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이다.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 분야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이다.

국회는 3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나랏돈을 더 풀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여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부 긴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기한(내년 12월 2일)에 맞춰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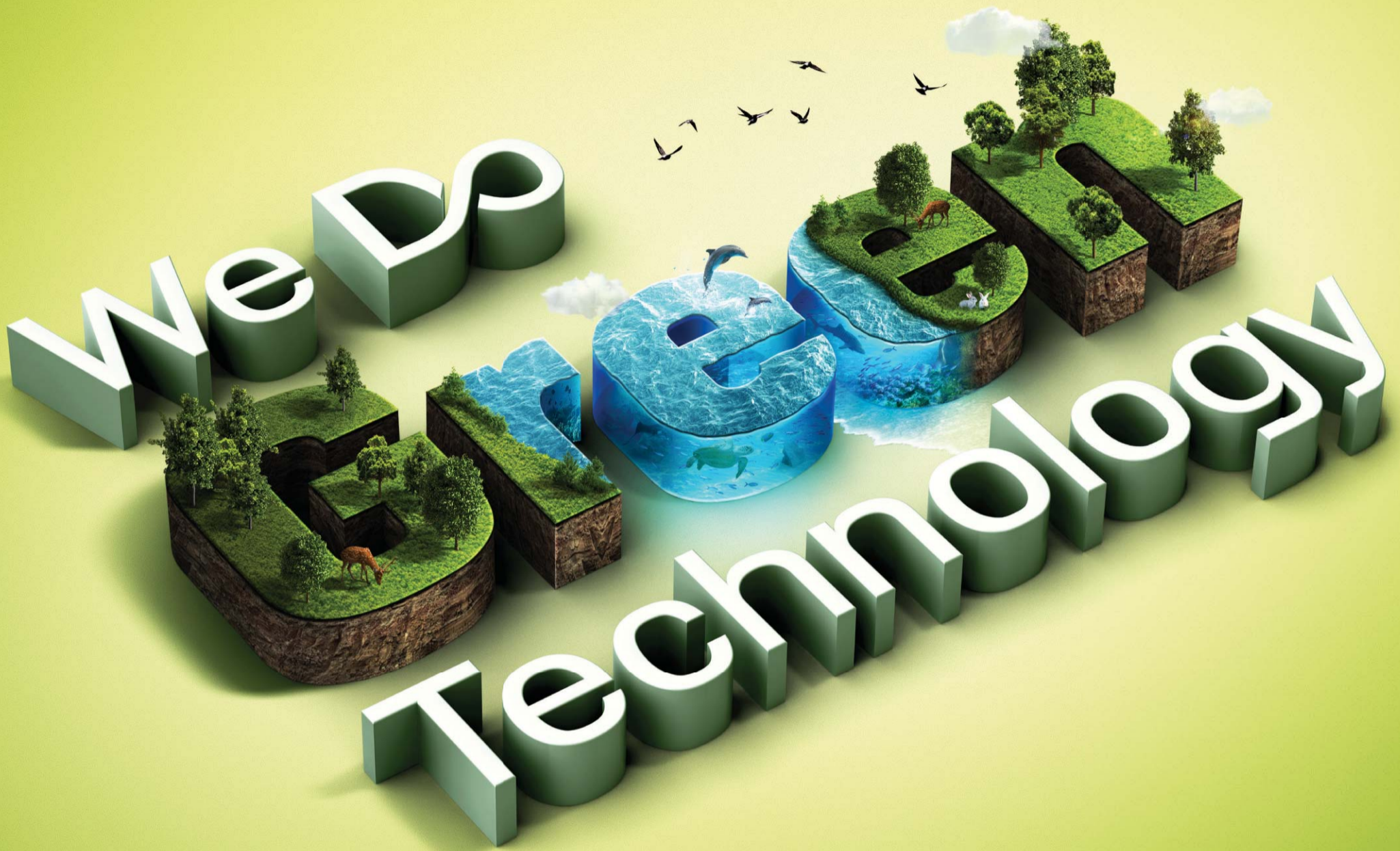
/서예진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CC* 멤버 가입
-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ECQ QC 080000* 인증 획득
-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 반도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경연 개최

*SC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
*IECQ QC 080000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유해물질 관리 국제표준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이재명 “경제성장률 3% 달성엔 ‘긴축’ 아닌 ‘확장재정’ 필요”

민생경제 기자회견

韓 12개월 연속 수출감소 현상 직면 무역수지 적자… 208개국 중 200위
尹 정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 R&D·신성장 동력 발굴 등 투자와 가계 대한 적극적 재정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제도를 제안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말하는데, 한 나라의 경제 규모(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다. 대한민국이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3.2%를 기록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에도 4.3%의 성장을 했지만 직전연도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일상이 됐고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며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투

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라는 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황당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

한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면서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 매라’고 한다. 허리띠 졸라 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쌍끌이 엔진을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꼽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언급하면서 첨단산업 연구 개발 지원, 벤처·스타트업 정부 지원, 재생에너지 예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아직 국가 부채 수준은 여력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 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재정 지출 확대의 시급함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항 의무화 ▲내수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민관협력 이자부담 3조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신설 ▲청년 교통비 부담 줄이는 ‘청년 3만원 패스’ 도입 ▲전세사기 보완입법 정기국회 추진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확장재정에 대해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적이다. 정부의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일면론만 맞는 데,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출 하나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며 “경기 불황기에는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활황기에 성과를 낸다. 빛이 나쁘다는 일반적 고정관념을 일상적으로 관찰하면 유능한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기현 “혁신위 화합 제안 존중”… 징계취소 의결·서울편입 특위 출범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 위원회 김포 유사도시도 원하면 적극 검토 친윤 인사 위주 공천… “결과로 평가”

국민의힘이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안을 의결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당 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제시했다. 과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안과 기준을 통해 이뤄져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혁신위의 제안도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의 진정성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징계처분 취소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이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의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

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당원권 정지 1년,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연관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징계 취소 의결을 알리며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 위원회(가칭)’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5선 중진 조정태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주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권, 통학권 그리고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역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

았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위를 발족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당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향후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지도부와 협의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 원내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이철규 전 당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인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직 사무총장으로 인재영입 활동이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등을 감안했다”며 “향후 위원장이

상의해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강서구청장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친윤계 인사 위주로 공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가지를 감안했다. 인재영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은 별개이기 때문에 결과로 평가받겠다”며 “이 전 사무총장도 활동하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에 대해 김용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고 당의 개혁을 바라는 인물은 승선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영입은 친윤감별사에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뜻”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태홍 기자

尹 “지역,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아야… 교육·의료 발전 핵심”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고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면서 각 지역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힘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과 의료,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가 열린다면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통합위, 청년·미래 ‘국민통합 토크쇼’

김한길 “청년 위한 사다리 견고히 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2일 ‘2023 국민통합 토크쇼’를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바라는 희망과 공정의 사다리를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며, 이 사다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통합위가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청년과 미래를 주제로 토크쇼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주거 문제, 진로불안 등의 어려움을 유난이라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1부 컨퍼런스는 다변화하는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이에 따른 발전적 대안으로, 청년이 국민통합의 중심이 되어 통합의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행사엔 각계 각층의 청년 대표들과 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및 2030 청년자문단 등이 참여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3분기 금융지주 저축은행 5곳 중 3곳 '적자'... 4분기도 암울

저축은행 5곳 순손실 70억 기록
신한 순익 100억, 하나 7억 '선방'
우리금융·KB·NH는 모두 적자
내년 상반기 이전 반등 어려울듯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다섯 곳의 실적이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실적을 통해 저축은행의 3분기 성적표를 미리 볼 수 있는 만큼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뉴스시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실적이 나오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5곳 가운데 3곳이 순손실을 기록해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권에서 예상한 '하반기 반등설'은 빛나간 모양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5대 금융지주(신한·KB·우리·하나·농협)는 자회사 저축은행의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저축은행 5곳은 순손실 70억 원을 기록했다. 신한·하나저축은행을 제외한 세 곳이 모두 적자다. 1~3분기 실적을 모두 합치면 손실액은 확대된

다. 3분기까지 저축은행 5곳의 누적순손실은 250억원이다.

순이익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저축은행이다. 3분기 당기순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면서 누적순이익 27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311억원) 대비

13.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대형 저축은행이 적자 전환하는 등의 업황을 고려하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하나저축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7억원이다. 누적순이익은 33억원이다. 지난해 동기(209억원) 대비 84.1% 줄었다. 하나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분기(16억원) ▲2분기(10억원) ▲3분기(7억원) 순으로 매 분기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흑자에 의미를 뒤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하나저축은행 순이익이 감소했다더라도 순이익이 난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성과다"라며 "대형 저축은행들 또한 대손상각을 고려하면 흑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우리금융·KB·NH저축은행은 모두 순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액이 가장 큰 곳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이다. 누적순

실은 284억원이다. 3분기 순손실 24억 원을 기록해 1~2분기 대비 적자폭을 줄였지만 흑자전환에는 실패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손실액은 260억원이다.

KB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순손실액은 226억원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34억 원 차이이다. 다만 3분기 성적표만 놓고 보면 우리금융저축은행보다 적자폭이 크다. KB저축은행의 3분기 손실액은 114억원이다. NH저축은행의 3분기 당기순손실은 39억원이다. 지난 2분기 당기순이익 9억 원을 달성했지만 또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NH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순손실은 43억원이다.

저축은행권의 4분기 전망도 어둡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하반기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리테일(소매금융)을 중심으로

대출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준 저축은행 여신잔액은 108조8647억원이다. 지난 1월을 시작으로 매달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실적 반등 시기가 한 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11월에 공개될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연체율에 따라 반등 시기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했다. 올해 저축은행은 연체를 해소할 위해 대출 문턱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중저신용차주 확보 기조의 성과가 분수령인 셈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하반기에는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이전에 반등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ool.co.kr

은행대출·카드론 문턱 높아자 리볼빙으로 몰려

9월 카드론 취급액 2680억 감소
리볼빙은 1262억 늘어 사상 최대

지난 9월 카드론 취급액은 감소했지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리볼빙) 누적 잔액은 증가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인 풍선효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카드론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신용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카드론 취급액은 38조4170억원이다. 한 달 사이 2680억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달 리볼빙 누적잔액은 1262억원 증가한 7조612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드론 잔액은 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카드론 취급액은 감소했지만 리볼빙 누적 잔액은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론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뉴스시스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등 수익성이 떨어진 카드사가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다. 하반기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고신용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대거 몰린 것 또한 카드사에는 연체율을 해소할 기회로 자리 잡았다.

한동안 카드업계는 카드론 긴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0%대에 머

물던 연체율이 올해 1%선에 진입한 만큼 건전성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에 따르면 10월 카드사 9곳 모두 신용점수 500점 미만의 차주를 대상으로는 카드론을 취급하지 않았다. 그간 신용점수 401~500점 구간의 차주에게 카드론을 내주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리볼빙 서비스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리볼빙 누적 잔액은 지난 3월(7조2150억원)을 제외하면 매달 증가세를 유지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기준 올해 리볼빙 누적 잔액은 연초 대비 2460억원 증가했다. 리볼빙 누적액 증가세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해 3분기 리볼빙 잔액 상단은 7조220억원이다. 올해 3분기 상단과 비교하면 5900억원(7.75%) 격차를 보인다.

금융당국 또한 리볼빙 리스크 관리를 직접 언급하며 경고장을 던졌지만 사실상 공명볼에 그쳤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점수에 따라 법정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만큼 차주의 부담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은 전 세계 모든 신용카드사가 취급하는 금융

서비스다. 신용카드만 발급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현업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사와 차주의 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소비자가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능력 확대 및 여건 개선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대출, 이자 감면 등의 포용금융을 통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일각에서는 포용금융의 확대가 금융소비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정책에 따라 취약차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투기성 자금운용을 통해 내몰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금융사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당국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세... 보험료 인하 기대감

5개 손보사 9월 누적 손해율 0.5%p ↑
전체 손보사 누적 손해율도 0.5%p ↑
손보업계 "하반기까지 지켜봐요"

올해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차보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손해보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 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78.3%로 전월(77.8%)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5개 손보사의 9월 손해율은 평균 82.3%로 8월 평균(80.8%) 대비 1.5%p 상승했다.

▲삼성화재(85.1%) ▲현대해상

(81.3%) ▲DB손해보험(80%) ▲KB손해보험(82.3%) ▲메리츠화재(82.8%) 등 모두 80%대로 올라섰다. 이들 5개 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90%를 넘는다.

전체 손보사의 누적 손해율도 84.2%로 전월(83.7%) 대비 0.5%p 상승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배경으로 9월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한 차량 운행 증가와 사고 건수 증가를 꼽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7월부터 휴가철 시작이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코로나19 영향이 적어 이동량이 늘었다"며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져 사고 위험률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사업비를 고려한 통상적인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82%로 추산한다. 손해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에 따라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이미 손보사들은 한 차례 보험료를 인하했다. 지난해 4~5월 주요 손보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및 사고 감소로 손해율 개선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1.2~1.4% 내린 바 있다.

올해 1월에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2~2.5% 추가로 인하했다. 당시 손보사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동 부담 차원에서 인하를 결정했다.

올해 초 보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2023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손보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겨울철 빙판 사고 증가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앞으론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손해율은 악화되는 추세고 실제로 하반기로 가면서 손해율은 높아진다"며 "10월 행정, 11월·12월 빙판 폭설 등 계절적 요인이 있으므로 매년 하반기까지 손해율은 상승해 왔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는 겨울철 등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보험료 인하를 이야기하기엔 성급하다는 반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에 보험료를 인하했는데 아직 올해가 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며 "하반기 요인들이 있고 아직 손해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보험료 인하를 논의하기엔 시점 자체가 너무 빠르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IBK기업은행-에너지공 총 2500억원 규모 RE100 펀드 공동투자

IBK기업은행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해 총 2500억원 규모의 RE100 펀드에 공동 투자했다고 2일 밝혔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이번 펀드는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된다.

RE100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인 기업은행과 한국에너지공단은 본 펀드 공동 투자를 통해 RE100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RE100 달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기아, '더 뉴 K5' 출시... "고객 이동경험 바꿔 놓을 것"



디자인에 기아 미래비전 반영
'OTA' 등 첨단사양 대거 적용
가솔린 모델, 2784만원부터

기아의 대표 중형 세단 K5가 4년만에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새롭게 돌아왔다.

2일 출시된 '더 뉴 K5'는 상품성 개선으로 침체된 중형 세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특히 더 뉴 K5는 사전계약 개시 5일(영업일 기준) 만에 6000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최양석 기아 국내마케팅1팀 팀장은 "K5의 사전계약 5영업일 동안 6000대 수준으로 진행됐다"며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이 높았고, 1.6 터보 모델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연간 판매 목표는 시장 상황과 외부환경 등의 변동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기아 더 뉴 K5.

하고 있던 최소 3만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 K5는 이전 모델보다 역동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등으로 강인한 느낌을 연출했다. 여기에 입체감을 강조하는 스타맵 라이팅 리어 콤파넌이션 램프를 후면부에 적용해 강렬한 외장을 완성했다. 실내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를 탑재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공조 전환 조작계 등 첨단 기술이 군

더더기 없는 간결함을 이뤘다.

주행 성능도 한층 강화됐다. 기아는 K5에 전·후륜 서스펜션 특성·소재 최적화로 민첩한 주행성과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했다. 차체와 앞유리 접합부 소재를 보강하고 전·후륜 멤버 최적화로 소음도 줄였다. 아울러 뒷좌석에 이중 접합 차음유리를 적용해 정숙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첨단사양 역시 돌아온 K5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요소다. 기아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반의 경험을 고



기아 더 뉴 K5 마션 브라운 실내 모습.

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은 물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상·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를 K5에 적용했다. 이 외에도 ▲기아 디지털 키2 ▲빌트인 캠2 ▲eHi-pass(하이패스) ▲지문 인증 시스템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트렁크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에어컨 애프터 블로우 ▲뒷좌석 6대4 폴딩 시트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대거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다.

전은석 기아 MLV프로젝트3팀 팀장

은 "고객 만족도가 높았던 기존 K5 디자인에 강인함을 더하기 위해 방향성을 부여했다"며 "실내선 커넥티드 시스템과 대화면 디스플레이,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말했다.

기아는 K5의 트림을 고객 선호도를 반영해 기존의 기본 트림 트렌디를 제외한 프레스티지·노블레스·시그니처 등 3개로 최적화 운영한다. 가격은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2784만원부터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3954만원 사이에 트림별로 다양하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혜택이 적용된 가격을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요한 페이즌 기아넥스트디자인내장실 상무는 "K5는 기아 디자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라며 "기아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디자인은 고객의 이동 경험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유·석화업계, 60兆 폐플라스틱 시장 공략

폐플라스틱 활용 사업 경쟁 치열
대규모 공장 착공... 공급망 확보도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확대로 정유·석화업계가 치열하게 폐플라스틱 활용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 활용 사업의 핵심 플레이어인 SK지오센트릭과 LG화학의 선두권 싸움이 치열하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해중합·고순도 폴리프로필렌(PP) 추출 기술을 동시 공략하는데 집중하며 LG화학은 국내 최초 원료용 열분해유 생산 공장 착공에 나선다.

2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폐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약 60조원으로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보인다. 석유화학업계는 2027년 약 83조원, 2050년에는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양사는 대규모 폐플라스틱 공장을 짓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2025년 울산에 총 1조7000억원을 투입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울산 ARC'를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울산 ARC에는 열분해 공정이 탑재돼 고순도 PP 추출과 해중합을 포함한 3가지 기술을 모두 가동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 더불어 영국 플라스틱 열분해 전문기업 '플라스틱 에너지'와 충남 당진시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2공장을 건립을 추진한다.

LG화학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당진에 총 3100억원을 투자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을 짓는 중이다. 공장이 준공되면 초임계 열분해 기술을 통해 연간 2만톤의 열분해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해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이들은 폐플라스틱 조달 능력을 키우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탄소 중립이 대두됨에 따라 폐플라스틱 소재의 가격 상승으로 수급이 불안정해 졌고, 품질이 좋은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업체 간 수급 경쟁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SK지오센트릭과 LG화학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해 폐비닐을 공급받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된 폐플라스틱을 타기업에 공급하는 데에도 한창이다. SK지오센트릭은 글로벌 포장재 기업 압코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플라스틱 원료 공급협약을 맺었다. LG화학은 쿠광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쿠광 물류센터에서 버려지는 스트레치 필름을 수거한 뒤 이를 재활용해 쿠광에 다시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이노텍, '협력사 역량강화 센터' 오픈

PLC, 로봇 등 다양한 분야 교육

동반성장지수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LG이노텍이 협력사 역량을 키워주며 상생 노력을 이어간다.

LG이노텍은 11월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협력사 역량강화 훈련센터'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통해서다.

LG이노텍은 협력사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훈련 센터를 새로 마련했다. 축적된 생산기술 노하우 전수와 전문인력을 파견하며 협력사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일환이다.

훈련센터는 협력사 31개사에 생산기



술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PLC(자동화시스템의 컴퓨터 전자장치)와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한다.

내년부터는 생산기술에 더해 품질,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를 확장해 2027년까지 총 15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철동 사장(사진)은 "협력사의 지원방식은 LG이노텍의 입장이 아닌 협력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협력사의 성장은 LG이노텍의 성장과도 직결되기에 함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오션, '태국 D&S' 참가... 靑 방산시장 추가 수주 모색

미래무인전력지휘통제 등 전시

한화오션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통한 '초격차 방산' 솔루션 확보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는 등 영역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오션은 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태국 D&S(Defense & Security) 2023' 전시회에 참가해 아시아 방산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태국 D&S 2023' 전시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방산전시회로 50개국 500개 업체, 35개국 400개 공식대표단이 참가한다.



오는 6일부터 '태국 D&S(Defense & Security) 2023' 전시회에 참여하는 한화오션 부스 모습 /한화오션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스라엘, 독일, 헝가리, 중국 등의 방산 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최근 남

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늘어나며 주목 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태국에 수출했던 3000톤급 호위함,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장보고-III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지휘통제함을 전시한다.

한화오션은 전시회 기간동안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활발한 미팅과 상담을 통해 추가 수주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SK이노, 협력사 ESG 역량 강화 지원

동반성장·ESG CEO 세미나

컨설팅 등 탄소감축 설비 도입 독려

SK이노베이션이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상생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2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산 남구 SK 울산Complex(울산CLX)에서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부 등 SK이노베이션 계열과 거래하는 협력사 80여곳을 초청해 '동반성장·ESG CEO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역 협력사 경영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구매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SK이노베이션 실무진은 ESG 추진현황, 윤리경영, 준법감시 등 ESG 경영과 관

련한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양섭 SK이노베이션 재무부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공급망 실사와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해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ESG 역량 강화가 중요해졌다"며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가 곧 SK이노베이션의 ESG 역량 강화라는 인식 하에 관련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의 ESG 경영이 정착하려면 실질적인 탄소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중소기업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탄소저감 설비 도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현정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집 꾸미기 붐’... 인테리어·가구 앱, 소비자心 공략 ‘치열’

인테리어 수요 ↑... 기업 경쟁 ‘각축전’
시공업체·가구제작 중개 확장 집중
결정적인 서비스·기술 아직 부족해
시장 2030년까지 44조 성장 ‘전망’

팬데믹 사태가 종식되고도 견고한 인테리어 수요를 잡기 위한 IT업계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3년, 길어진 실내 생활과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맞아떨어지며 인테리어 붐이 일었다. 과거 인테리어는 전월세 집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내집 마련을 포기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붐이 불었다.

엔데믹에 이른 현재도 2년 여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며 인테리어 수요가 이어지며 관련 앱(APP)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대부분 기업이 자사 상품 판매 내지는 소셜마케팅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2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인테리어·가구 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앱 사용이 일상화한 2030세대가 인테리어에 큰 관심을 보이



오늘의집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3D 인테리어 서비스. 2D와 3D 모드를 지원하며 이용자에게 가구 구매 전 시뮬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쇼핑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집이 제공하는 무료 3D 인테리어 서비스. 렌더링 이미지를 제공하며 이용자에게 가구 구매 전 시뮬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쇼핑에 도움을 준다.

면서 앱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모바일인덱스의 분석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준 지난 10월 인테리어 앱 이용자 수와 시장 점유율은 ▲오늘의집 ▲한샘몰 ▲이케아 ▲자주(JAJU) ▲집꾸미기 ▲모던하우스 ▲원룸만들기 순으로 나타났다. 오늘의집과 집꾸미기, 원룸만들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앱은 모두 기성 기업의 온라인 앱이다. 한샘은 가구 상장기업이지만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종합몰의 성격을 갖췄고 이케아는 자사 가구만을 다루면서 동시에 배송 및 설치까지 전담하고 있다. 자주 또한 신세계인터내셔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의 쇼핑몰이다.

현재로서는 오늘의집이 강력한 커뮤니티

기능을 토대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IT업계에서는 아직 다른 플레이어의 진입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위 기업인 오늘의집 모회사 버킷플레이스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4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가 15.6% 증가한 점과 아직 각 기업들이 모두 가구 판매와 광고 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반응할 신규 서비스 론칭에 성공한다면 단숨에 패권을 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전히 결정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통해 이용자 확보에 성공한 곳은 없다. 현재 각 기업은 ▲3D/AR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인테리어 조력 ▲시공업체 및 가구 제작 중개 서비스 확장 등에 집중하는 상태다.

오늘의집은 기술 확보를 통한 인테리어 조력 서비스에 힘쓰는 대표 기업이다. 소셜마케팅 기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2020년 가상 3D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키드로우와 기술을 제휴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의집은 AR 기능 고도화를 위해 현재 확장현실(XR) 엔지니어 등 개발자를 늘리고 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코어 엔진 개발자를 확보, 향후 AI를 활용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게 목표다. 지난 2021년 3D 인테리어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 1월에는 판매 가구 일부에 증강현실(AR) 기능을 적용하고, 소비자가 가구 구매 전 자신의 집에 직접 배치해볼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한샘은 자사가 확보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월 온라인 플랫폼인 통합한샘몰을 내놓으며 홈리모델링 부문을 시작한 후 지난달 홈퍼니싱 부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리모델링에서는 ▲아파트로 찾기 ▲엔택트 3D 제안서 ▲리모델링 매니저 기능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가 쉽게 자신의 집과 같은 아파트와 평수의 시공사례를 다양한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이어 홈퍼니싱 부문에는 ▲매장 상담 예약 ▲QR체크카드 ▲불박이장 셀프 플래너를 추가했다. 기업의 강점을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인테리어 앱 시장에 전문 IT기업 외 기성 가구 기업 등까지 합세한 데에는 인테리어 시장의 한편, 급격한 성장과 향후 성장 가능성 탓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0조원으로 예측하고 2025년 37조원에 이어 2030년에는 44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통계청 또한 홈 퍼니싱(집꾸미기) 시장이 2015년 12조 5000억원대에서 2023년 18조원 대로, 특히 셀프 인테리어 시장은 2008년 7조 원 시장에서 2023년 18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 렌터카 EV6로 편안한 제주여행 어때요?” 화성국제테마파크에 ‘하늘나는 택시’ 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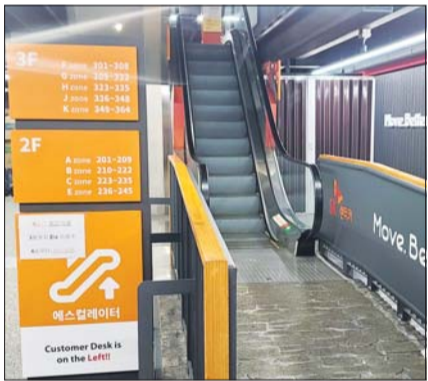
김재웅의 봄봄봄
SK렌터카, 제주서 전기차 1200여대
인수·반납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무료 충전 서비스로 가격 경쟁력 ↑

‘친환경 섬’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도와 전기차 중심 친환경 렌터카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SK 렌터카의 만남.

2일 업계에 따르면 SK 렌터카는 제주에서 순수 전기차만 업계 최대인 1200여대를 운영 중이다. 2025년까지 3000여대를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하고 한국 전력을 비롯한 충전 업체들과 힘을 합쳐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랜만에 떠나는 제주 여행, SK 렌터카를 사용해봤다. 다양한 전기차종을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EV링크를 사용하면 충전 요금도 가격 경쟁력도 충분했다.

SK 렌터카는 제주에서 2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제주공항 인근에 SK 렌터카, 그리고 다소 떨어져있는 곳에 있는 빌리카다. SK 렌터카가 더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고, 빌리카는 상대적으로



SK 렌터카 제주지점 인수 주차장 입구.

로 저렴한 편이다. 모두 제주공항에서 무료 셔틀을 제공한다.

SK 렌터카는 인수와 반납을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인수 시간이 되면 차량 주차 장소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출차할 때 신원 확인만 하면 된다. 덕분에 카시트 등 별도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설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빌리카는 제휴 업체가 아니면 출차하면서 따로 만나 설치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주차장소에 가니 주행거리 550km 이상을 표시하는 완충된 기아 EV6가 서 있었다. 카시트도 설치된 상태, 출차 장소로 이동하면 신분증을 제시해

신원을 확인한 후 바로 나가면 된다.

차량은 신차급으로 관리됐다. 누적 주행 거리가 2만km를 넘었지만 청소 상태는 완벽했고 냄새도 없었다. EV6 중에서도 차상위 트림인 롱레인지 AW D 어스 모델로, 무선충전을 비롯해 통풍시트와 2열 온열시트 등 주요 편의 사양도 대부분 갖췄다. SK 렌터카 매출에서 중고차 판매 비중이 30% 수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량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V6는 제주 여행에 안성맞춤이었다. 대형 세단에도 비견할만한 2열 레그룸과 여러 개의 캐리어를 실어도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강력한 주행 성능에 안락한 좌석으로 해안 도로 드라이브를 더욱 즐겁게 했다. 주행거리도 제주도를 두바퀴 돌아도 남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SK 렌터카 무료 충전 서비스는 부담없이 제주도 전역을 마음껏 달리게 도와줬다. SK 렌터카는 EV링크 앱을 통해 제주 지역에서 무료 충전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

SKT 미래형 모빌리티 환경 구축

K-드림팀 컨소시엄(이하 드림팀)이 신세계프라퍼티가 개발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시작으로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

SK텔레콤을 포함해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가 참여하는 드림팀은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사 신세계프라퍼티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드림팀과 신세계프라퍼티는 화성국제테마파크내 UAM 서비스 구현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UAM 이착륙과 항행에 필요한 시설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UAM 기체를 타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골자다. /구남영 기자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9000㎡ 부지에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여기에 테마파크, 호텔, 레지던스, 쇼핑몰, 골프장 등을 설립하고 UAM과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드림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성국제테마파크 UAM 사업에 필요한 운항 서비스, 버티포트 운영, 교통관리, 모빌리티 플랫폼 등 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에서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역량을 활용해 UAM 서비스 전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UAM 기체를 도입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운항관리 시스템과 상공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구남영 기자

LGU+ 아이들나라, 아동 교육사업 확장

오리지널 콘텐츠 600여편 등 제공

LG유플러스는 키즈 전용 서비스 ‘아이들나라’에서 실물 교재·교구를 선보이고 아동 교육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아이들나라는 지난 2017년 IPTV 부가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이후 키즈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현재 오리지널 콘텐츠 600여편과 양방향 콘텐츠 1만여편 등 총 5만여편의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올해는 ▲과학교구 키트로 구성된 교구 패키지 ‘쑥쑥 과학놀이’ ▲오감을 활용해 독후활동을 할 수 있는 교재 ‘남다른 문해력’ 등 실물 교구·교재 2종을 새롭게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B2C·B2B 등 유아동 교육 사업 확장에 나선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中企 협력사와 車 부품용 신소재 공동 개발

기아 변성 에폭시계 소재개발 성공

기아가 협력사와 함께 세계 최초 기술을 적용한 차량 부품 신소재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 기아는 범우화학, 에스앤에스와 함께 세계 최초로 변성 에폭시계 소재를 적용한 인쇄회로기판(이하 PCB) 보호코팅제 개발에 성공해 국내특허 2건과 해외특허 1건을 취득하고 부품 핵심소재의 공급망 개선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PCB는 전자장비 구성요소를 지지하

고 이를 연결함으로써 전기 신호를 흐르게 하는 부품이다. PCB 보호 코팅제는 전기전자부품 및 인쇄회로기판을 보호하는 절연 코팅제로 온도, 부식, 충격 및 진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자동차의 전자 제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부품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으나, 글로벌 무역보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소재공급망 확보가 어려워졌다. /양성운 기자 ysw@



Enjoy Your Life

유럽제품 을 안방에서 즐기다

COCOSBAY

NAVER

코코스베이



COCOSBAY

<https://smartstore.naver.com/cocosbaygmbh>

2차전지株 ‘깜짝반등’ 기대감에… “리스크 커 투자 신중해야”

LG엔솔·에코프로 등 급락하다 이날 일제 상승에 수익회복 기대 전문가 “상승했던 만큼 빠지는 중상반기 같은 주가흐름은 없을 것” 일부 공매도 시행에 하락 의견도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투자에도 급락세를 보이던 2차전지주가 돌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반기와 같은 주가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평가 중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급락세를 보이던 2차전지주가 반등 기미를 보였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면서 2차전지주에 대한 선호를 유지했다. 하지만 2차전지주 대부분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공든 탑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날은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개미들의 우려를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개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였던 LG에너지솔루션(4204억원)은 10월에만 주가가 19.09% 가량 떨어졌다. 이외에도 포스코홀딩스

(2673억원), 삼성SDI(2439억원), 포스코퓨처엠(2310억원) 등이 상위 5개 종목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부진한 성적을 냈다. 3개 종목 역시 10월에만 주가가 23.08%, 16.89%, 34.21%씩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에 들어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며 부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3.71%) ▲포스코홀딩스(6.21%) ▲삼성SDI(5.99%) ▲포스코퓨처엠(11.13%) 등 모두 올랐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손해도 만만치 않았다. 개미들은 지난달에 에코프로비엠을 2757억원 가량 사들이면서 압도적인 선호를 보여줬다. 순매수 2위였던 하나마이크론 664억원과는 약 2000억원 차이는 규모다. 개미들의 맹목적인 신뢰에도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25.45% 떨어지면서 미끄러움을 탔었지만, 2일에는 15.06% 오르면서 강세 흐름에 탑

승했다. 9월 말 증가와 비교해서는 낮은 주가지만 급등세에 따른 기대감이 오르는 모습이다.

다만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제도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2차전지가 성장 구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상반기에 성장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던 만큼 눈을 낮춰야 하는데, 최근 주가조정이 그 과정 중 하나로 보인다”며 “오늘 주가가 폭등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빠지는 느낌이 있고, 주가가 급등할 만한 새로운 이슈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전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큰 국면이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상반기까지 상승 모멘텀이 애매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자라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와 같은 주가 흐름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2차전지주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기준 공매도 잔고금액 1위는 1조3685억원인 LG에너지솔루션이 었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금액이 1조74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에코프로비엠(1조483억원), 엘앤에프(3367억원)이 이름을 올렸다. 세 종목 모두 지난달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이차전지주를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진행됐던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배터리 산업 국산화율 확대 기여… 연평균 85% 성장”

IPO 간담회

에코프로머터리얼즈

국내 유일 전구체 대량생산 업체 4년내 연 생산능력 4배 이상 확대 17일 상장… 1447.6만 주 전량신주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더해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이차전지주의 주가가 연일 조정을 받고 있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에코프로머터리얼즈가 흥행에 성공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훈 에코프로머터리얼즈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돼 당혹스럽지만, 에코프로머터리얼즈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 비전을 고려하면

지금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7년 설립된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대량 생산한다.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의 원료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만큼 배터리 원가의 약 20~30%를 차지한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구체의 95%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머터리얼즈의 상장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전구체 생산능력을 현재 연간 5만 톤에서 2027년 연간 21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의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출은 2018년 569억원에서 지난해 6652억원으로 연 평균 84.9%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5241억원, 영업이익 155억원을 거뒀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개선된 주행 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수요는 지난해 1530만대에서 2027년 41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양극재 수요는 141만8000톤에서 526만3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경쟁사 대비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고 황산화공정(RMP) 기반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 같은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오는 3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8~9일 일반 청약을 거쳐 이달 1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에서 전량 신주 방

식으로 총 1447만6000주를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금액은 3만6200~4만6000원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2조5700억~3조27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공모로 마련될 투자 재원은 최대 6369억4400만원으로 이중 대부분은 추가공장 등 설비투자 및 원재료 매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병훈 대표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전구체 업체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차세대 전구체에 대한 개발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머터리얼즈가 하반기 마지막 대어인 만큼 상장 흥행 여부에 따라 향후 기업공개(IPO) 시장의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가는 에코프로머터리얼즈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혜영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머터리얼즈는 국내 이차전지 전



김병훈 에코프로머터리얼즈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에서 상장 후 성장 전략을 밝히고 있다.

/원관희 기자

구체 업체 중 CAPA(생산설비) 증설 및 생산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업체”라며 “2023년 5만 톤의 생산능력을 2027년 21만톤 규모로 확대함에 따라 25년부터 증설분이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확실히 배제되면 국내 전구체 업체들의 투자 매력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KB증권, ESG평가 지배구조 4년연속 A등급

이해관계자 소통·윤리경영 등 체계화된 ESG 실행조직 성과

KB증권은 2023년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 지배구조(G) 분야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KCGS는 공신력 있는 ESG 평가기관으로서, 매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으로 나눠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KB증권과 같은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G)부문에서만 평가를 받는다.

KB증권은 ‘ESG+I(Investment,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영, 사회책임 활동

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ESG 생태계 참여 및 대외 기관과의 연계와 협업 등 ESG 분야별로 고르게 실행력을 높여가며 ESG 선도 금융회사로 자리잡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에서 체계화된 ESG 실행 조직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 확립, 리더십과 임직원 커뮤니케이션의 조화, 내부통제와 윤리 경영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의 ESG등급은 자본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관련 발생 가능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투자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KB증권은 한국ESG기준원의 개정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KB증권

한 결과, 4년 연속 A등급을 얻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금융회사로서는 유일하게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에서 4년 연속 전 부문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ESG경영 선도 금융그룹’임을 입증했다. 이에 KB증권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파운트, 고객 예수금 ETF에 자동 투자

KB증권과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는 KB증권과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의 예수금을 자동으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주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파운트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별도의 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가 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동으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진행한다.

파운트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KB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인 ‘마블(M-able)’과 ‘마블미니(M-able mini)’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투자자가 보유한 KB증권 계좌 가운데 일임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주식거래 가능 계좌만 해당한다.

투자상품은 파운트의 자회사 파운트 투자자문의 대표적 투자일임 상품인 글로벌 ETF를 대상으로 한다.

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일임 서비스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계좌에 잠시 쉬고 있는 투자금을 로보어드바이저가 알아서 굴러줌으로써 글로벌 자산배분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파운트의 글로벌 자산배분 및 운용 노하우를 제공, 편리하고 효율적인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서비스 안정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자체개발·복합신약 중심 ‘매출 성장’... 연간실적 기대감 ↑

국내 주요 제약사들 3분기 최대실적
한미약품 누적 1조 돌파 역대 최대
대웅제약 영업이익률 11.2% 달성
유한양행 전년비 매출액 10% 올라
종근당 누적 영업이익 1265억 기록



한미약품 본사.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이달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은 물론, 수익성도 확대되면서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3분기만에 누적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만에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데 이어 올해도 또 한번 기록 갱신을 앞두고 있다.

한미약품은 올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3646억원과 영업이익 575억원, 순이익 605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2.9%와 93.5% 성장한 수치다.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했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의 배경에는 한미가 자체 개발한 개량·복합신약 중심의 경쟁력 있는 전문의약품 치료제 라인업이 자리한다.

한미약품은 3분기 원외처방(UBIST 기준) 매출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9.3% 성장한 2305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성장한

455억원을, 고혈압치료제 복합신약 제품군인 ‘아모잘탄패밀리’는 3.5% 성장한 352억원을 기록했다.

대웅제약은 2023년 3분기 누계 매출 9024억원(별도기준), 영업이익 1013억원, 영업이익률 11.2%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 11.6% 오른 규모다.

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 매출 3030억원, 영업이익 342억원으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특히 실적을 주도한 것은 전문의약품(ETC) 부문으로 확인된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이며 216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자체 개발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를 포함한 기존 제품들의 고른 성장이 지속됐다.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는 출시 후 누적 매출 550억원 대를 달성하며 블록버스터 신약

으로 도약 중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도 자체 개발 품목의 지속적인 성장, 나보타의 국내외 사업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 파이프라인 강화와 꾸준한 R&D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K대표 헬스케어 그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3분기 별도기준 잠정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4689억원, 영업이익은 53.7% 증가한 6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5% 올랐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4076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실적이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유한양행의 3분기 실적 호조는 생활유통사업과 해외사업이 견인했다. 생활유통사업의 3분기 매출은 5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3% 증가했다.

종근당은 3분기 누적 매출 1조1482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1265억원이다. 지난 3분기에는 전년 대비 4.1% 늘어난 3분기 396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531억원으로 33.8% 늘었다.

종근당 관계자는 “프롤리아, 딜라트렌, 글리아티린, 벤포벨 등 기존 품목과 루센비에스, 엑시글루에스, 바이탈 프로그램 비타민C 등 신규 제품이 고루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웨이,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고객 확대

신한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코웨이가 신한은행과 손잡고 다양한 마케팅 등을 적극 협력한다.

2일 코웨이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전사적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하는 동시에 각 기업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코웨이는 신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슬립 및 힐링케어 신규 브랜드 비렉스(BEREX)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종 산업 간 협력으로 브랜드 활동 반경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신한 PWM 센터 내 비렉스 안마 의자 체험존 구성 ▲신한 디지털로그에 비렉스 팝업 쇼룸 운영 ▲제휴 금융 혜택 도입 ▲스포츠 행사를 비롯한 공동 마케팅 제휴 활동 등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코웨이는 신한금융 초고액 자산가 특화 점포인 신한 PWM 센터와 제휴해 프리미엄 공간 마케팅으로 상호 시너지를 도모한다.

또한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디지털로그브랜치에 비렉스 쇼룸을 마련하고 이달 7일부터 3주간 체험형 팝업 공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 센터인 신한 학이재(인천 남동구)에도 비렉스 페블체어를 설치해 고객 체험 마케팅을 확대한다. /김승호 기자

경동나비엔, 숙면 기술 연구개발 ‘속도’

에이슬립과 새 수면 기술 공동개발

경동나비엔이 수면 시장을 추가 공략한다. 경동나비엔은 인공지능(AI) 수면 분석 플랫폼 기업 에이슬립(Aslee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숙면기술 확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을 맺은 에이슬립은 수면 패턴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슬립루틴’의 개발사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로 수면 중 호흡음을 측정해 수면의 질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렘수면, 일반 수면, 깊은 수면 등 단계별 수면 패턴과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등의 호흡안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I가 수면 패턴을 분석해 사용자가 깨우게 일어나는 시간에 깨워주는 ‘스마트알람’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동나비엔 김용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오른쪽)이 에이슬립 이동현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두 기업은 업무협약을 통해 ‘나비엔 숙면매트’에 적용할 새로운 숙면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최적의 숙면온도를 제공하는 경동나비엔의 온도제어 기술력과 에이슬립의 수면 패턴 분석 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배터리 설비물류 3000억 수주

북미 중심 공급망 현지화 따라
신규공장 생산설비 물류 급성장
배터리 보관 등 관련 인증 획득



CJ대한통운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설비 물류 하역 현장.

CJ대한통운이 전기차 시장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 물류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를 위해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 등 현지에 구축하고 있는 공장설비 물류를 통해 관련 물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도 확보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배터리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물류 수주액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현지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구축 중인 한국 기업들이 대상으로, CJ대한통운이 향후 3년에 걸쳐 3개의 공장 준공에 관련된 자재 및 설비 물류를 수행한다. 북미 중심의 공급망 현지화에 따라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대규모 현지 투자에 나서면서 관련 물류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포워딩 물류사업도 본격화되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체비를 갖췄다.

CJ대한통운은 빠르게 성장 중인 배터리 시장에서 앞선 물류 경험을 기반으로 ‘설비→소재·부품→완제품→회수’에 이르는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으로 물류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 특화 물류센터 구

축, 배터리 보관·운송·패키징 기술 개발, 관련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을 통해 배터리 전문 물류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동시에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과의 협업도 활발히 추진한다.

배터리 물류시장 공략에는 CJ대한통운의 미국사업 역량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은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난해 1조3000억원의 매출을 거두는 등 북미 중심의 배터리 물류시장 공략에 최적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미국법인인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는 미국 전역에 걸쳐 56개, 연면적 2570만 스퀘어피트(약 72만 평) 이상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특히 본사가 위치한 시카고 테스플레인은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부품사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동부권 및 캐나다 동남부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또 해양진흥공사와 6000억원을 공동 투자해 미국 일리노이와 뉴저지 인근에 3개의 대형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북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배터리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무선가전, 로봇,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까지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관련 물류 시장 역시 성장성이 무한하다”면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 물류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미래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배터리 물류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팅크웨어, 글로벌 블랙박스 제품 선봬

‘SEMA SHOW·세마쇼’ 참가

팅크웨어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자동차 부품 박람회인 ‘2023 SEMA SHOW·세마쇼’에 참가한다.

2일 팅크웨어에 따르면 ‘세마쇼’는 1963년부터 매년 11월에 열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로 자동차 부품, 튜닝 자동차, 차량용품 등 총 12개 부문에 걸쳐 평균 40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7만명 이상의 글로벌 바이어가 참가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다.

전시회에서 팅크웨어는 아이나비의 글로벌 블랙박스 브랜드인 ‘팅크웨어 대시캠(Thinkware Dash Cam)’의 주

요 제품(U3000, F70 PRO, F200 PRO, X1000, Q1000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에 리뉴얼을 통해 공식 런칭한 테슬라 전용 PDLC 스마트 필름인 ‘칼트윈 ACTIV’도 공개한다.

‘칼트윈 ACTIV’는 팅크웨어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차량에 투과되는 태양열을 완벽에 가깝게 차단하는 전기차 전용 PDLC 열 차단 필름이다. 97마이크로미터(μm)의 얇은 두께로 시공했을 경우 순정 상태와 거의 동일할 정도의 압도적인 시인성을 보이며 실제 시공 현장에서 불필요한 성형과 재단을 하지 않고 차량 손상 없이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리뉴얼했다. /김승호 기자

노조 10억 지원·근로시간 면제 초과 등 위반사업장 39곳 적발

고용부, 62개소 집중점검 중간결과 부당노동행위·위법 단체협약 등 교섭기간 전체 유급처리 편법도 노사법치, 합리적 관계 구축 토대 이달까지 약 140개소 감독 지속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감독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성희 차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10억 원 넘게 지원했다. 통신·방송장비 업체 B사는 제네시스와 그랜저 등 고급승용차 10대 렌트비 등을 노조에 제공했다. C공공기관은 사업주대상 민사소송 참여시간(208시간)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면제시간으로 처리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 D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연차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등 888시간을 임의로 제외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744시간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위법의심 사례를 점검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점검기간(9월18일~11월30일) 가운데 지난 10월13일 기준 중간결과 발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부당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고용부는 “1) 운영비원조와 관련해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 원 지원을 비롯해 2) 노조사무실 직원급여 전액 지원 3) 노조전용 승용차 10대와 유지비 등 1억7000만 원 지원 등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 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 등)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한 경우 2) 파트타임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시간·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노사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해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할 수 있다. ‘위법한 단체협약’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암체 주유소 단속”

산업부, 관련부처와 현장점검 착수 연말까지 6000곳 대상 특별점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암체 주유소 단속을 위해 발족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첫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강경성 2차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가격 관련 민생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현장 점검에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7월 첫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으나, 10월 첫주부터 4주 연속 하락 중이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10월 2일 리터당 1796원에서 10월 31일 1747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같은 기간 경유가격도 리터당 1699원에서 1676원으로 하락했다.

점검단은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지역 내 답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아울러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또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 행위는 없는지도 확인했다.

현장 주유기 대상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달하는 판매행위가 없는지도 점검했다.

강경성 2차관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국 6000곳 대상 특별 가격·품질 점검도 연말까지 병행하고,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부, 김장재료 비축물량 2만여톤 공급

배추·무 공급 감소에 1.1만톤 방출 천일염 1만톤 할인 공급... 역대 최대



서울지역 한 대형마트 내 채소 진열대

/뉴시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천일염 1만톤을 비롯해 배추와 무 등 김장재료 비축물량 2만여톤을 공급한다. 예비비 245억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도 30만원씩 상향조정하는 등 농수산물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달기에 나섰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이조사한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감소했다.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돼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김장 재료 등의 가격상승 요인은 공급량 감소 등으로 상존한 상황이다.

주재료인 배추는 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고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

황이다. 다만 소금과 고춧가루, 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관련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수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 비축물량 1만 1000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특히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12월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 확대해 소비자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138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려 245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별도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이 밖에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김장 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재배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계속 생산되는데,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김장재료 구매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중진공-두산, 中企 ESG 공급망 지원

협력 中企 ESG 역량 선제적 강화 전문가 진단 후 맞춤형 컨설팅 연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두산과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지난 1일 두산과 서울 동대문 두산 본사에서 ‘중소기업 ESG 공급망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은 글로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ESG·탄소중립 전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과 박영호 두산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과 두산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탄소중립 진단 무상 지원 ▲협력 우수기업에 후속연계지원 제공 ▲ESG·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등 ESG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ESG·탄소중립 전문가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ESG 역량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두산은 진단결과를 토대로 협력기업에 ESG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나아가 기업별 영위업종·생산공정 등을 고려해 협력기업 임직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부이사장(왼쪽)이 지난 1일 서울 동대문 두산 본사에서 두산 박영호 부사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의 생산·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은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시행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에도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영향이 강화될 것”이라며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ESG 위험은 물론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대기업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합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올해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급망 ESG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전문적인 ESG 지원을 위해 민간과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ESG 애로사항을 앞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선택한 검증된 학습법 링크

과목/ 수준 모두 “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맞춤** 학습 ” 링크를 경험해 보세요

한글(국어), 수학, 영어 모두 시작하려는 아이도
영어만 지금 필요한 아이도 모두 OK!



지금 무료체험 신청시,
알파벳 + 수학 브로마이드 2종도 선물!



1위 학습 링크, 무료체험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 링크 무료체험을 신청하세요!



교육발전특구,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교육부-지방시대추진계획 발표

교육혁신·지역인재 양성·정주 지원 의대 포함 대학지역인재전형 확대 30억~100억 사업비 검토할 예정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가 그 지역 학교로 진학하고 취업·창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발전전략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역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내년 시범지역 선정... 3년간 운영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이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하나로,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인재를 기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

는 담대한 교육개혁'이라는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번 시안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본격 운영에 앞서 정부는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은 지정

규모(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3년이다.

특구 지정 신청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장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이야기가

나온 초창기부터 미리 준비해 온 지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재원과 내용, 준비도가 다를 수 있다"라며 "우선 골고루 신청받아서 (선정 과정을 거친 뒤) 시범운영을 하도록 열어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 여건 강화... '지역인재전형' 확대 기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해당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이를테면, 특구 내 대학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리고, 초·중·고교는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의대를 포함한 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구 내 대학은 의대뿐 아니라 학생 선호도가 높은 첨단학과 등에서도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 졸업자가 지역산업에 특화된 기업에 취업이 용이하도록 고교 단계부터 관련 과목들을 구성해 수업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인재가 그 지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라며 "특화된 지역인재가 맞춤형으로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원을 우선 투입해 30억~100억원 안팎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특구별 지역교육 발전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운영되는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서울시-SH공사, 반지하 주택 줄인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상시 접수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인센티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곳을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혹은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기에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보다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SH공사는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번 공모부터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이 상시로 전환된다.

SH공사는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접수 확인이나 심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 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hji1@

인천시, 내년 예산 15兆... 역대 최대 규모

올 본예산 대비 1.1조 증가

인천시가 내년도 새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로 편성해 시민과 함께하는 1000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출범 후 두 번째 본예산인 2024년도 예산안을 15조 392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11월 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13조 9,157억원) 대비 1조 1235억 원(8.1%)이 증가한 규모다.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국비 확보액 5201억 원과 세외 수입 증가분 6704억 원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채를 일부 추가 발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이 총 부채 규모를 9조 원대로 관리하고, 관리채무비율은 13% 내외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4년 세출 예산은 ▲연례 반복적, 낭비성 기존 사업 예산의 과감한 조정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절감된 재원은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을 위한 민생사업에 투입 ▲시민과 약속한 핵심공약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3조 733억 원을 투자하고, 사람 중심 교통체계와 연령별·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 시민복지 일선지 구현을 위해 5조 3737억 원을 편성했다. 또, 도시경쟁력 강화, 재난 안전도시 구현 등 글로벌 도시 도약에 6조 5922억 원을 반영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인하대, 인문사회·환경분야 융합인재 위한 공간 조성

INHA-HUSS Green Lounge 기후위기 대응 사고·활동 펼쳐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문사회 융합인재를 위한 공간인 'INHA-HUSS Green Lounge'의 문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INHA-HUSS Green Lounge는 인하대 학생들이 기후위기 문제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활동을 펼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HUSS(Humanities Utmost Sharing System)는 대학 내외 협력·공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인문사회 최고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이다.

인하대는 지난 7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환경 분야에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사업단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대응



INHA-HUSS Green Lounge 현판식에 참여한 내빈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융합전공 신설·운영, 교육 기반 개선,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명우 총장은 "인문사회와 환경 분야를 융합하는 의미 있는 사업의 시작을 축하하며 앞으로 사업단의 융합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인하대 기후위기대응사업단장은 "그린 라운지는 개방형 공간으로

기후위기 콘텐츠를 인테리어에 녹이는 등 학생들이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HUSS 컨소시엄 대학과 힘을 모아 기후위기 문제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문사회 융합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이-팔 전쟁 통한 방호대책 논의

서울시는 2일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한 현안보 상황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핵 및 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을 포함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 확장역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핵 확장 억제, 핵 공유 또는 전술핵 배치, 한·미 핵 협정 보완 등 다양한 핵 정책 방안이 공유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민 안전보장을 위한 핵·미사일 방호대책'을 주제로 유사시 경보 전파, 대피소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김현진 기자

크리스마스 '인증샷 맛집' 어디?... 유통가 '핫플' 쟁탈전

현대백, 더현대 서울 'H빌리지' '해리의 꿈의 상점' 테마로 꾸며
롯데백 '소망' 주제 빈티지감성 장식
신세계백 외벽에 뮤지컬무대 연출
파라다이스시티 '노란 호박' 트리로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외벽을 장식한 미디어파사드. /신세계백화점



파라다이스시티 와우존 '호박 트리' /파라다이스시티

유통업체가 연말 특수를 겨냥해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단장에 나서는 모습이 다. 이색적인 테마와 거대한 규모의 크리스마스 장식부터 미디어 파사드, 형형색색의 조형물 등 다양한 인증샷 콘텐츠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진을 통해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포토프레스(Photo+Express)'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고객들의 발길을 끌어 '연말 특수' 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압도적 스케일의 장식으로 집객 나선 백화점 업계

매년 연말 분위기를 주도하며 '인증샷 맛집'으로 변신하는 백화점 3사가 장식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웅장한 디스플레이와 실내 조형물 등 규모감을 자랑하는 백화점 내외부를 빛의 향연으로 물들인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일 더현대 서울

5층 사운즈포레스트에 '해리의 꿈의 상점'을 테마로 한 'H빌리지'를 공개했다. 11m 높이의 대형 트리과 현대백화점 전 점포를 상징하는 16개의 상점과 시장, 6000여 개의 조명 등으로 이국적인 공방들이 모인 골목길을 구현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3일 본점 외관에 불을 밝힌다. '소망'을 주제로 편지를 통해 안부를 전하던 시절의 빈티지한 감성을 비주얼로 풀어낸다. 화려한 장식에 생생한 스토리를 더하고자 정세랑 작가와도 손을 잡았다. 쇼윈도 역시 지난해보다 4개 늘려 총 9개를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신세계 극장'을 테마로 뮤지컬 무대를 본점 외벽에 연출한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반짝이는 회전목마, 밤하늘을 달리는 선물 기

차, 트리로 둘러싸인 아이스링크가 차례로 펼쳐지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할 계획이다. 11월 둘째 주경 본격 점등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관의 연말 장식은 2014년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쇼를 본격 도입한 이래로 해마다 인증샷 성지로 이름을 알려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광고판을 떼고 더욱 큰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 장식을 도입해 소셜미디어 등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호텔업계, 서터본능 자극

호텔 및 레저업계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적극 강화하며 '연말 핫플' 쟁탈전에 나섰다. 인증샷을 불러 일으키는 각양각색의 트리는 물론 크리스마스

마켓, 퍼레이드 공연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예년보다 빠른 이달 초부터 '매지컬 크리스마스' 메인 콘셉트 하에 호텔 곳곳을 럭셔리한 성탄절 분위기로 장식한다. 특히 로비 중앙 와우존에 전시된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 작품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탈바꿈한다. 작품 주위를 거대한 리스 형태의 트리로 감싸고 동화 속 산타 마을을 연상시키는 독일 메르클린의 모형 기차와 오너먼트를 배치해 화려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내달에는 대형 광장 '플라자'에서 북유럽 산타 마을을 연상시키는 '산타 빌리지' 테마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크

로마스퀘어'와 '아트가든'에서 크리스마스 테마의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하는 등 색다른 연말 콘텐츠를 연이어 공개한다. 특히 '아트가든'에 상영되는 미디어 파사드 스크린은 가로 약 95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마법같이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무드를 만끽할 수 있다.

◆테마파크, 오감만족 콘텐츠로 고객 감동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테마파크 내 여러 공간에 인증 욕구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매직포레스트에 찾아온 겨울' 콘셉트의 '미라클 윈터' 시즌을 오는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정문 게이트와 로얄가든 입구를 크리스마스 리스, 솔방울, 리본 등으로 연출하고 정문 광장에는 5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설치한다. 테마파크 중심부의 로얄가든 분수대는 빛과 트리가 어우러진 일루미네이션 분수 트리 숲으로 재탄생한다. 이 밖에 퍼레이드 공연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레고랜드는 12월까지 겨울 시즌 운영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로 단장한다. 온 가족이 '추억샷'을 남길 수 있는 '메리 브릭스마스' 테마의 레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ul.co.kr

현대백 대표에 정지영... 안정 속 변화 추구

총 40명 2024 정기 임원인사
홍쇼핑 대표이사에 한광영 내정
현대L&C 전무에 정백재 승진

현대백화점그룹은 사장 1명, 부사장 1명을 포함해 승진 17명, 전보 23명 등 총 40명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2024년 1월 1일부터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 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에 비해 축소했다.

현대백화점 수장으로는 정지영 대표이사 사장이 내정됐다. 정 사장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해 30여년 간 활동한 정통 '현대백화점맨'으로 통한다. 2012년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를 지냈고, 2013년 현대백화점 울산점장 상무, 2015년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 상무로 그룹을 이끌었다. 2018년에는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 전무를 역임한 후 올해는 현대백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한광영

현대홍쇼핑 대표이사 부사장



정백재

현대L&C 대표이사 전무

화점 영업본부장 겸 영업전략실장 부사장을 지냈다.

한광영 현대홍쇼핑 부사장과 정백재 현대L&C 전무도 승진 인사에 포함돼 각 사의 신입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이번 정기 임원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 기조 속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 추구'다.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해 조직을 확장하기 보다는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실을 꾀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그룹의 미래 성장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새로운 리더십 등을 두루 갖춘 미래지향형 인재를 핵심 포지션에 중용해 그룹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현대백화점 대표와 임대규 현대홍쇼핑 대표는 이번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T&G, 신탄진 NGP 공장 생산능력 확대

전자담배 스틱 생산설비 3기 추가
36만 상자 보관 자동화창고 구축

KT&G가 '글로벌 톱 티어 도약' 과 전자담배 생산혁신 거점 구축을 위해 신탄진 NGP(전자담배) 공장을 확장했다.

KT&G는 전날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백복인 KT&G 사장 등 4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확장 기념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과감한 성장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NGP 사업을 글로벌 톱 티어 플레이어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KT&G 신탄진 NGP 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전자담배 스틱 생산설비 3기를 추가 도입해 총 8기의 설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최대 36만 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자동화 창고도 구축해

NGP 사업 도약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KT&G는 혁신플랫폼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NGP 사업의 원활한 수요 대응을 위해 신탄진·광주공장 등 국내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생산혁신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신탄진 NGP 공장 확장은 지난 1월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성장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KT&G는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함께 NGP·글로벌CC(글로벌 컬렉션·건기식)을 3대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성장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NGP 사업부문에서는 생산거점 확보 등 적극적인 사업 기회 포착을 통한 투자와 혁신으로 2027년 비권리사업(NGP·건기식 등)의 매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GF 대표이사 부회장에 홍정국 선임

신임 대표이사에 민승배 승진

BGF그룹은 2일 이사회를 열어 지구회사인 (주)BGF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홍정국 사장을 BGF 대표이사 부회장 겸 BGF리테일 부회장으로, (주)BGF리테일 민승배 영업개발부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승진하는 최고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홍정국 부회장은 2013년 BGF

그룹에 입사해 전략기획본부장, 경영전략부부장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 (주)BGF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왔다. 홍정국 부회장은 그룹 전반의 신성장 기반을 발굴하고 편의점 CU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번 인사로 그룹의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트렌드에 민감한 CVS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 계열사에 대한 책임 경영을 보



홍정국

BGF 대표이사 부회장 겸 BGF리테일 부회장



민승배

BGF 리테일 대표이사

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GF리테일 신임 민승배 대표이사는 28년간 BGF맨으로 한 우물만 판 편의점 전문가다. /신원선 기자

농심 '신라면 더 레드' 호응에 정식 출시

20일 출시, 내달 중순 용기면 선보

'지금까지 먹은 매운 라면을 모두 잊게 하는 중독적인 매운 맛'

농심은 지난 8월 한정판 제품으로 출시한 '신라면 더 레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자 오는 20일부로 정식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심 신라면 더 레드는 출시 80일 만에 1500만 봉 판매를 넘어섰다. 이는 올해 출시한 라면 신제품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농심 관계자는 "더 매운 프리미엄 제품인 신라면 더 레드는 출시 초

반부터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재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12월 중순에는 용기면을 선보여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라면 더 레드를 맛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심 신라면 더 레드는 매운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스킵 지수가 7500SHU로 기존 신라면보다 약 2배 높은 제품이다. 수차례 시식평가와 소비자 평가를 거친 결과 지나치게 맵지 않으면서 신라면 고유의 감칠맛과 가장 잘 어울리는 스킵 지수가 7500SHU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신원선 기자

롯데케미칼-한전, 차세대 ESS 솔루션 개발·상용화 맞손

스탠다드에너지 3사 업무협약
바나듐이온배터리 고도화 협력

한국전력공사, 롯데케미칼, 스탠다드에너지가 기존 에너지 저장 장치(ESS_Energy Storage System)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나듐이온배터리 활용 차세대 ESS 솔루션 연구개발 및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3사는 현재의 ESS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ESS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 및 해외 진출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체계인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와 에너지밸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ESS 실증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스탠다드에너지 및 롯데케미칼 등 3사는, 1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차세대 ESS 솔루션 연구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 김태균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 황민재 롯데케미칼 CTO(최고기술책임자) /롯데케미칼

차세대 ESS 솔루션 개발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ESS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게 되며, 스탠다드에너지는 바나듐이온배터리를 활용한 ESS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는 배터리 성능

평가 및 실증 등 R&D를 공동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표준 인증, 해외 ODA 사업, 국제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ESS는 전력계통의 부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안정

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바나듐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여 발화 위험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배터리로서, 높은 안정성과 뛰어난 내구성을 바탕으로 고효율·고출력이 가능하며 산업용,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케미칼 황민재 CTO(최고기술책임자)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소재, 배터리, ESS 실증까지 Value Chain 완성이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업무 협력"이라며 "차세대 ESS 시장에서 선도적인 모델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며, 특히 바나듐 액체전극, 플라스틱 소재 등 배터리 고도화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LG전자·협력회, 군부대 가전제품 지원

LG전자는 LG전자 협력회와 1일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보병사단을 방문해 가전제품 80여 대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전사 협력회 회장 한동권 미래코리아 대표, 육군 제15보병사단장 강현우 소장, LG전자 동남성장담당 김병수 담당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포스코DX, 장애인 유튜브 공모전 시상

2일 포스코DX에 따르면 지난 1일 장애인 유튜브 공모전 '꿈을GREEN다'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회에 입상한 참가자에게는 부문별 다양한 포상과 함께 포스코 그룹사에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전문 유튜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포스코DX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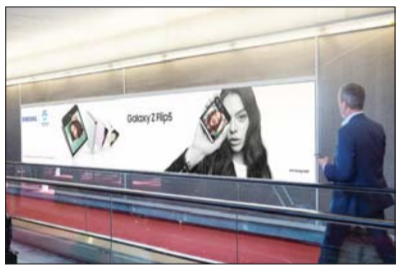
삼성전자, 파리에 부산 매력 전파

샤를드골 국제공항에 광고판 설치
개최지 선정까지 지원 활동 예정

삼성전자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확정지을 프랑스 파리에 유치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최근 프랑스 샤를드골 국제공항 2E 터미널 입국장에 14개 광고판으로 부산엑스포를 알리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광고판이 설치된 곳은 대한항공과 델타 등 주요 항공편이 이용하는 위치로 공항 이용객들이 꼭 지나게 된다. 100m 가량을 다양한 컬러시 광고와 함께 인상적인 부산 모습을 일



삼성전자 광고판이 설치된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 2E 터미널 입국장.

러스트로 표현한 홍보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할 BIE 제173회 총회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차그룹, 대규모 디지털 옥외광고

파리서 270개 디지털 스크린 상영
'부산 이즈 레디' 슬로건 등 표현

현대자동차그룹이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대규모 옥외광고를 선보이며 막판 유치전에 힘을 더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시내 주요 명소와 쇼핑몰 등에 있는 270여개 디지털 스크린을 활용해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유치전은 BIE 본부가 위치한 파리에서



현대차그룹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제작한 광고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옥외광고를 통해 갈매기, 광안대교 등 부산 주요 상징물과 '부산은 준비됐다'는 의미의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슬로건 등이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표현됐다.

/양성운 기자



애경산업-의식주컴퍼니, 사업제휴 MOU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런드리고 군포팩토리에서 의식주컴퍼니와 제품 개발 등 전략적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왼쪽부터)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이사과 조성우 의식주컴퍼니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기념하고 있다. /애경산업

LG디스플레이, 7일까지 '아트 웨이브' 개최

OLED 활용 신진작가 작품 소개

LG디스플레이가 OLED를 활용한 예술 마케팅을 이어간다.

LG디스플레이는 7일까지 서울 성수동 썬드에서 디지털 아트 전시회 '아트 웨이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OLED 패널을 활용한 국내외 신진 작가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예술과 기업을 결합해 OLED 차

별적 가치를 알리고 예술가에게 창작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롱 드림(LONG DREAM)'을 주제로 구기정, 송예환, 스튜디오 아텍(STUDIO ARTECH), 알루, 조나단 모나한(Jonathan Monaghan) 등 국내외 작가 5팀이 88·77인치 초대형 OLED, 투명 OLED 등 총16대의 OLED를 활용해 '가상과 현실을 빛과 색으로 이은 유토피아'를 담아냈다. /김재용 기자

오비맥주 "귀하신 미성년자, 함께 지켜요"

역전할머니맥주와 음주예방 캠페인

오비맥주가 음주폐해예방의 달인 11월을 맞아 살얼음생맥주 전문 프랜차이즈 주점 '역전할머니맥주'와 함께 미성년 음주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귀하신분' 캠페인은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게 하는 오비맥주의 건전

음주 문화 조성 활동이다. 귀한 사람을 뜻하는 '귀하신 분'과 '귀하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캠페인명에 재치 있게 담았다.

오비맥주와 역전할머니맥주는 전국 역전할머니맥주 300여개점에서 11월 1일부터 수능일인 16일까지 귀하신분 캠페인을 전개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오늘의 날씨

11월 3일 (금)
음력: 9월 20일

수도권 날씨
17 ~ 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현대차, 새해 맞이 '싱 유어 위시' 이벤트

"소중한 사람과 함께 새해 소망 노래"

현대자동차가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세리머니와 연계한 고객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현대차는 오는 12월 31일 송출 예정인 '2024년 카운트다운 세리머니'에 앞서 고객들이 새해 소망을 공유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사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직접 카운트다운 세리머니의 주제가 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해 소망을 노래하는 뜻을 담은 '싱 유어 위시'를 콘셉트로 이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싱 유어 위시' 이벤트는 ▲새해 소망을 담은 음원 '위시' ▲음원 '위시'의 가사에 고객 본인의 소원을 넣어 직접 노래 부르는 '위시 송 카'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양성운 기자



파리바게뜨, '파리 생제르맹' 파트너십

파리바게뜨가 '파리 생제르맹'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한다. (왼쪽부터) 파리바게뜨 허진수 사장, 파리 생제르맹 마크 앙드레를 CRO가 스폰서십 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SP그룹



여경협, 여성기업 글로벌 역량 키운다

여경협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 한인상공회의소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앞줄 왼쪽 2번째)이 방호열 산타클라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GLOBALCONTENTS PRESENT

17세기 파리, 위대한 전설이 시작된다!



MUSICAL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

2023.9.15 - 11.19 한전아트센터

주최 (주)조선방송,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 (주)글로벌컨텐츠 | 제작 (주)글로벌컨텐츠
티켓예매 YES24 인터파크 티켓링크 | 공연문의 1577-3363, 02-2051-1698



Licensed by Ckopyama Musical, Prague present Three Musketeers, music by Michel David, Bryan Adams/Michael Kamen/Robert Lange, libretto by Lou Fonanek Hoegen and Liber Vaculik, book by Liber Boculik and Lou Fonanek Hoegen based on the novel by Alexander Dumas. The song All for Love used with the kind permission of Bodans Music Ltd, Sony/ATV Music Publishing, Universal Music publishing and Warner/Chappell music Publishing

'김포, 서울편입'과 주객전도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여당의 '김포시 서울편입' 계획이 나라를 일파만파 흔들고 있다. 단순히 김포시만 아니라 서울 주변 몇몇 연담도시의 동반 편입론까지 확대되고 있는데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원칙론과 비수도권 소외론이 가세하며 지난해 대선 이후 보기도문 이슈 점화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폭풍을 도의시한 총선전략용' '국민 갈라치기'라고 공격하며 행정체제 대개편론으로 응수하고 나섰다. 순식간에 김포시나 서울시민은 물론 비수도권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나라전체가 떠들썩한 모습이다.

서울시민이 아닌 서울시의 입장만 놓고 보면 그다지 나쁜 카드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963년 이후 지역 확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한계치를 벌써 넘어서버린 도시계획에 새로운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최근 전세계 주요 대도시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성전략과도 궤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김포시민들 입장에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것이다. 김포시는 지난 1998년 군에서 시로 승격할 때 10만이었던 인구가 택지구조성과 한강신도시 건설 등으로 불과 20여년만에 48만여명으로 급팽창했다. 도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광역교통망의 부재는 심각한 생활 불편을 주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망과 연계하는 골드라인을 타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 주민의 고충을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가 기반시설 구축의 책임을 방기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획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국면은 자칫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다.

우선 김포시민 대부분이 서울편입에 찬성하고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의 경우 시내 낙후지역의 반발이나 시민들의 거부감, 조세저항 등이 만만찮을 것이다. 남북도로 행정구역 분리를 추진 중인 경기도의 반대도 넘어야 할 큰 벽이다.

여기에 당장 정치쟁점화할 조짐이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을 모양새다. 야당은 여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 상황을 정면돌파하려는 승부수로 '김포편입론'을 꺼냈으며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는 국토균형개발이란 대전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로 지역 소멸이란 극단적 문구가 수시로 등장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만한 시점이다.

주변상황을 볼때 거대담론에 휩쓸려 정작 눈앞에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일이 꼬이게 된다면 부동산가격만 올려놓은 채 김포시 주민들은 허탈감, 소외감만 떠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엄청난 휘발성을 가진 만큼 한가지 분명한 것을 보여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첫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는 지방을 부흥시키려는 진지한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이다.

뜬금없는 주장이 큰 흐름을 바꾼 사례는 없지 않았다. 이번 논란이 주객전도하는 발전적 논의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라 믿어보자.

/skc8472@metroseoul.co.kr

'회전문 인사' 비판, 당직 인선에 고려할 것들



기 지 수 첩
서 예 진
(정치경제부)

국민의힘이 2일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말 그대로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기구다. 그리고 이 기구의 수장으로 이철규 의원을 내정했다. 이 의원은 김기현 1기 지도부의 사무총장이었고, 최근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사가 보름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오니, 당연히 당내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격하게는 '아내의 유혹 이냐'는 표현도 나왔다. '접 하나 찍고 돌아온' 상황이 됐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의

원은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지난 8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자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당 지도부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같은 지적에 "충분히 감안했다"고 답변했으니 말이다. 당에서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래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지도부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도부는 2기 임명직 당직자 선임 당시, 정책위의장에서 사퇴한 박대출 의원을 다시 사무총장에 앉히려다가 '돌려막기'라는 반

발에 무산된 바 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업무 연속성 역시 마찬가지다.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길 만한 인사를 찾기 쉽지 않았던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자.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친윤계를 다시 당직에 앉혔다. 그의 능력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하지 않을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의 인재영입위원장 내정 소식에 "대통령께 할 말 하겠다는 다짐은 커녕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못 보는 현실인식"이라고 맹비난했다. 당직 인선을 할 때 능력, 업무 연속성, 세평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도 고려할 항목에 넣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syj@

오늘의 운세 11월 3일 (음 9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자식 사업실패는 자업자득 自業自得. **48년생** 일상을 살아가는데 남을 괴롭히는 부정보다는 긍정의 마음을. **60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 **72년생** 다정다병이니 지나친 간섭보다는. **84년생** 원인을 알면 방법을 찾을 수가.
- 37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몰아서 가야 실수가 없다. **49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1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73년생** 남보다 앞서 나가니 불편. **85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 38년생** 병도 약도 다 제 할 탓인데. **50년생** 욕심이 지나쳐서 만족하기 힘들다. **62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74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활짝 열린다. **86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기 필요.
- 39년생** 부질없는 참견은 실수 연발. **51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명확한 일이 없다. **63년생** 투자를 권하는 이가 있으니 현혹되지 마라. **75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높은 벽찬 하루이다. **8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한발 물러서도록.
- 40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가 오면 적극 활용. **52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는 다음을 위해 잘 보관. **64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76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획좌불안식. **88년생**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라.
- 41년생** 뒤늦게 새로운 이성 만남을 경계. **53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 본다. **65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순전히 내 탓임을 명심. **77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 희망을 버리지 마라. **89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 42년생** 돈거래는 확실한 거절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 **54년생** 날씨가 변화 무쌍하니 우산과 비옷을 챙겨서 나가라. **66년생** 남을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 된다. **78년생** 무심결에 말조심. **90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라.
- 43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5년생** 혼자서 어려운 일을 맡으려고 애쓰지 마라. **67년생** 과욕으로 새로운 재물근심이 생긴다. **79년생** 도대체 원활한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91년생** 명성으로 이직을 재검토하는 시간.
- 44년생** 누구든지 인연을 맺는 데는 처음이 중요하다. **56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니 주의. **68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운 날. **80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무사히 처리. **92년생** 모르는 투자는 삼가라.
- 45년생** 식구끼리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57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69년생** 정치적인 언행에 끼어들면 곤경을 겪는다. **81년생** 서남쪽으로 가면 행운. **93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 46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달래준다. **58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70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82년생** 인정은 변하기 쉬운 실력을 쌓아. **94년생**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요행수를 바라지 말 것.
- 47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에서 운동. **59년생**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다. **71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족에게. **83년생** 고민 말고 하나를 양보해보시라. **95년생** 근육자극 즉 운동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겹쳐지듯 선한 사람과 친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동서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다. 얼마 전 하버드 의과대학의 실험결과를 인용하며 행복호르몬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많은 의과대학 등 연구팀은 웃음이 주는 호르몬과의 역학 관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다. 역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 사람이 웃으면 세로토닌 또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인간의 면역세포의 활동도를 최대 200배까지 높인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암 종합병원에서는 웃음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웃음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웰빙사의 법회 때에도 웃음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회가 끝난 후 2부 특별 순서로서 웃음세미나(?)를 드린 적이 있다.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웃음의 장점을 함께 참석해 주신 신도님들과 실습을 곁들여 듣고 있자니 새삼 어릴 적 순수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은 덤이요, 뭔가 응어리진 답답함이 풀려나가는 후련함은 마치 훌륭한 명약을 먹고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보니 진정한 웃음다운 웃음을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웃음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하니 웃는 것도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단다. 웃음은 일종의 전신운동이라 웃을 때 얼굴의 신경 요소와 근육뿐만 아니라 가슴과 배 근육 미세한 곳까지도 진동을 주어 평소엔 웃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몸의 부분까지도 운동 효과를 준단다. 이러한 움직임이 신경점유와 돌기에 자극을 주어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라토닌이나 옥시토신을 분비케 하여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이는 몸과 마음에 긍정 시너지를 선순환시키는 것이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6	1		9			
				2				
		3	4		7	1		
	5						4	6
		2				7		
9	1							8
		4	7		1	8		
				4				
		9		8	5			2

7		1	4	6				8
		8	5					
							6	5
							9	1
	2							3
5	1							
9	8							
					4	8		
4				9	5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도카를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1	7	9	8	6	4	9
4	9	9	2	7	6	1	8
6	8	8	1	9	4	7	2
9	8	8	7	4	2	9	1
1	6	4	9	9	8	2	8
9	7	2	6	8	1	4	9
8	9	1	4	6	7	8	9
7	4	9	8	2	9	8	6
8	2	6	8	1	9	9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0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0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UNO GOLF
PREMIUM GOLF STUDIO

골프, 유튜브로 싱글되기!

검색하세요
주노골프 

핵심 콕콕! 깔끔하고 명쾌한 원포인트 레슨!
반복시청만으로도 누구나 싱글!
김준호 프로의 골프레슨을 무료로
시청하세요



**김준호
프로**

- 📍 KPGA 프로
- 📍 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주장
- 📍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졸업(골프전공)
- 📍 미국 Brian Mogg 골프스쿨 3년 수료
- 📍 호주 Ryde Paramatta Club 대표선수(4Y)
- 📍 미국 호주에서 다년간 골프 레슨

- 유튜브 > 주노골프
- 인스타그램 > juno_kim_44

주노프리미엄골프스튜디오

070-4243-9238

위치: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8
B1 주노골프스튜디오



전국 콜키지 무료?... 주류반입 시대를 기다리며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0

#.“이 맥주 좀 시원한 것으로 바꿔줄 수 없을까요?”

“상은 맥주를 찾는 손님들이 더 많다보니 우리 식당은 아주 차가운 술은 없습니다. 맑은 편에 편의점 보이죠? 저기 맥주 시원한거 있어요. 사다 드세요.”

#.“여기 와인이라 위스키 콜키지 얼마예요?”
“없습니다. 저희는 주류를 불문하고 술은 반입이 안됩니다.”

한 곳은 중국, 다른 한 곳은 한국이다. 요즘 술자리에 가기 전엔 ‘콜키지’가 얼마인지 묻는게 일이다. 식당이 100곳이라면 콜키지 방식도 백가지다. 안 받는 곳도 있다지만 여전히 드물다. 인당, 또는 병당 몇 만원부터 최근엔 시간당으로 가격을 책정한 곳도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의 경우 입장 판매가의 몇 퍼센트, 또

顾客吃饭自带酒水，被收50元开瓶费，酒店：你享受的是服务包厢费

来源: 2023-09-30 19:52 来源: 近日，一起关于自带酒水在酒店消费被收取开瓶费的事件引起了广泛关注。据报道，江舟山一男子在一家酒店用餐时，自带了两瓶酒水，却被酒店收取了50元开瓶费。下面，我们将就自带酒水是否合规、自带酒水收费情况、服务态度以及总结四个方面对此事件进行评论。

중국 저장성의 한 호텔에서 주류 반입비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요구한 주류 반입비는 중국 위안화 50원, 한화로 치면 약 9100원이다. /바이두 캡처

는 심만원대를 부르는 곳도 있어 원성을 샀다. 아예 주류는 반입 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곳도 많다.

전국, 어느 식당이나 콜키지 무료. 이런 곳이 있을까. 있다. 중국이다.

자타 공인 술꾼으로서 술 배송(안상미 기자의 와이와인<211>술 18분 배송의 추억) 못지 않게 중국이 그리워질 때는 바로 식당에 술을 가져가고 싶을 때다.

먼저 콜키지라는 말부터 바꿔야겠다. 콜키지란 와인의 ‘코르크’에 비용을 뜻하는 ‘차지(charge)’를 더한 말이다. 보통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고객이 가지고 온 주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뜻하는데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주류 반입비’를 선정하 바 있다.

중국의 경우 부러 묻지 않아도 주류 반입비가 없는 것이 상식이다.

자기 술을 가져갈 수 있는게 일반적인 라지만 처음엔 뭔가 어색한 나머지 스스로 제한을 뒀다. 그 식당에서 파는 술은 가져가지 않거나 아니면 맥주나 쌀 술은 식당에서 시켜먹는 다든지 말이다. 맥주를 ‘주류반입’할 생각은 차마 못하고 있던 일행들에게 종업원이 편의점에서 사다 먹으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나서 보니 특히 대여섯명 이상 단체로 온 경우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캔맥주까지 바리바리 들고와 마시는 것이 보였다. 맥주나 와인은 뭐 말할 것도 없었다.

공짜니 물론 서비스도 기대하면 안된다. 착석하면서 당당히 술을 가져왔으니 잔을 달라고 말한다. 그러면 종업원도 자연스럽게 가져다준다. 10곳 중 9곳은 투박한 물컵을 사람 수에 맞게 줬다. 내가 꺼낸 술이 와인인데 맥주든 말이다.

중국도 고급 식당인 경우 주류 반입비를 요구할 때도 있었다. 한 일식당은 와인

을 가져왔더니 잔당 얼마를,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병당 얼마를 내라했다. 그런데 와인잔을 안쓴다니 돈을 안받는다. 후자는 와인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치즈와 살라미를 준비 중인데 필요없다니 낼 비용도 없었다.

최근에 중국 저장성의 한 호텔이 주류 반입비를 내라고 했다가 비난에 휩싸였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는 물론 사용할 때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데 술을 가져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쉽게 말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난리가 난거다. 당시 고객이 가져간 와인 2병에 대해 호텔이 요구한 주류 반입비는 중국 위안화로 50원, 한화로 계산하면 약 9100원이었다.

전국 콜키지 무료인 중국에서 한국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술을 가져가면 비용을 받을까 안받을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 뷔페 식당에 문의했다. 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주류에 한해서만 비용없이 들고와 마실 수 있겠다. 절반은 중국식, 절반은 한국식인가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두 발로 걸으며 얻은 통찰

이상한 서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곳에 놓인 수만 권의 책들은 인문, 역사, 소설, 시, 자연과학, 소설, 에세이 등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주인장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책들을 서가에 꽂아 놓고, 방문객은 원하는 책이 나타날 때까지 책장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다소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에도 불구하고, 서점의 인기는 높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재미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걸기의 인문학’은 미국의 작가이자 역사가인 리베카 솔닛이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얻은 통찰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당신은 이 백과사전을 들춰보기 위해 역수 같은 빛속에서 한참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클릭과 드래그면 됩니다”라는 카피가 붙은 시디롬 백과사전 광고를 보게 된다. 광고 문안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보던 솔닛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도서관에 가던 아이에게 진짜 교육, 적어도 감각과 상상력의 교육은 빛속을 걸어보는 게 아니었을까.

책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점점 증식한 기술력이 생산 시간을 최대화하고 이동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의 자유 시간을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최첨단의 시간 절약 기술력을 통해 노동자가 얻는 건 자유가 아닌 생산성. 기술력을 둘러싼 효율성의 수사 또한 계량 불가능한 것은 가치



걸기의 인문학

리베카 솔닛 지음/김정아 옮김/반비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수많은 재미, 특히 공상에 잠기거나 구름을 쳐다보거나 이리저리 거닐거나 가게를 구경할 때와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의 범주에 속하는 재미는, 더 분명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빨리 진행되는 일로 채워져야 하는 빈틈이 아닌 것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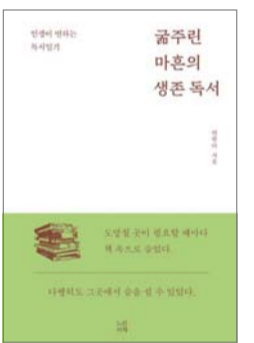
바깥을 걸으며 우연히 친구를 만나거나, 가게 진열장에서 찾아다니던 책을 발견하거나, 수다쟁이 이웃에게 인사를 듣거나, 담벼락이나 전신주에서 공연 포스터나 아이로니컬한 정치 논평을 읽게 되거나, 건물들 사이로 달이 뜨는 것을 보는 것. 이처럼 무작위로 널려 있는 어떤 게 우리 눈에 띄는 순간, 우리는 자기가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고 솔닛은 말한다. 512쪽, 1만9500원. /김현정 기자 hjk1@

끓주린 마흔의 생존 독서

책 읽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쇼츠(짧은 동영상)’에 눈과 귀를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긴 글 읽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독서도 책 내용을 요약한 동영상 보는 것으로 대신하는 시대에서, 밥은 굶더라도 책은 읽는다는 사람이 있다. 긴 통근 시간 때문에 책 읽기를 시작했던 저자는 이제는

책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됐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를 마주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 “읽다 보니 변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다른 내가 돼 있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하루 한 권, 빛이 돼 준 책들에 관한 이야기.

324쪽, 1만6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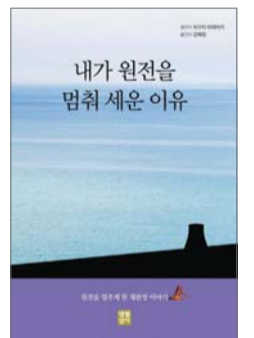
변한다 지음/느린서재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가동 중이던 원전을 모두 정지시켰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전력 회사들은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려 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대해 원전 운전 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후쿠이 지방 재판소에서 오이 원전의 운전을 금지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책의 저자는 이 재판을 관장한 재판장 히구치 히데아키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해 원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낸다. “사람이 항상 관리해야 한다는 말은 사람이 관리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192쪽, 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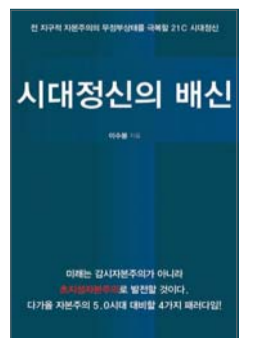
히구치 히데아키 지음/김해정 옮김/생활성서사

시대정신의 배신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나라다. 국민들은 어느 한 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저울질한다. 좌파는 주사파에 장악당하고 강남좌파와 같이 신기득권화 됐으면서 성장하지 않고, 우파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발전시키지도 새로운 정치인을 키워 내지도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를 소

망하는 제3정치세력은 현실 정치에 실패했다고 책은 지적한다. 저자는 이들 모두에게 걸립된 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진단하고, ▲신자유민주주의 수립 ▲초지성자본주의 ▲종북주사파와 결합한 기득권 카르텔 세력 척결 ▲지역분열주의 극복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296쪽, 2만원.



이수봉 지음/새론북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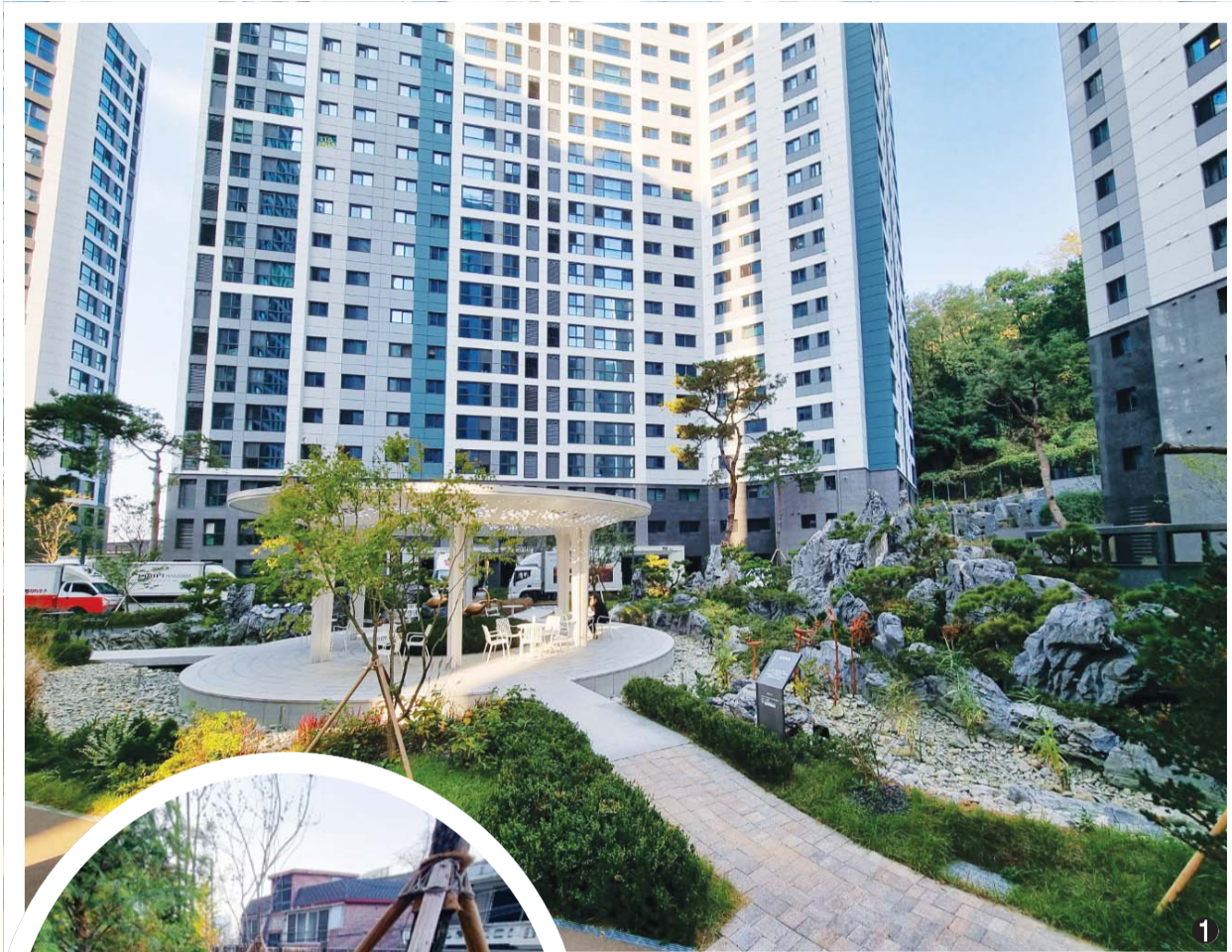
▲IEA “중동 정세 따라 유가 100달러 넘을 수도” /사진 뉴시스
▲‘채권왕’ 건들락 “내년 초 경기 침체...금리 하락할 것”

▲헤즈볼라 “누고 약한 이스라엘 피로 물들여라”
▲이슬람계 민심 의식...바이든, 이슬람 혐오증 대응전략 마련 중



▲中 증시, 상승 개장 후 매도로 등락...창업판 0.2% ↓
▲中의존도 줄이며 ‘수출 플러스’...겨울철 에너지 수요 주목 /사진 뉴시스

피톤치드 마시며,形形色색 야생화들과 ‘가을맞이’



아파트의 미학(美學)

광명푸르지오포레나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서 도보 10분 남향 위주 배치 채광·통풍 등 극대화 낮은 건폐율로 동간거리 확보 ‘쾌적’ 최첨단 보안강화 시스템으로 ‘안전’

단지 곳곳엔 조경·휴식공간 배치 동근 ‘달빛정원’에는 석가산 설치 야생화·암석들로 조성된 ‘락락’ 새집·돌무더기 등 ‘육생 비오름’

최근 찾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포레나’. 지난 9월 입주 시작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렸다.

단지 인근에는 광명남초등학교와 경기 항공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광명전통시장과 목감천, 도덕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광명뉴타운 14R구역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4개동, 총 1187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49㎡ ▲59㎡ ▲74㎡ ▲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푸르지오포레나(PRUGIO FORENA)’ 로고가 부각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는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해 차 없는 지상공원이 눈에 띄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한화 건설부문)은 조망과 채광, 통풍을 고려해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낮은 건폐율로 넓은 동간거리도 확보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과 녹색 건축물 인증을 통해 친환경 단지를 구현했다.

단지에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5ZCS(Five ones Clean Air System)’

가 도입됐다. 단지 입구, 지하주차장, 각 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집안 등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구역을 5개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차단·관리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조명·난방·가스 제어, 세대현관 방문객 확인 및 문열림, 세대 간 화상통화, 엘리베이터 호출, 원격검침 등이 가능해 입주민에게 스마트한 주거 문화를 제공한다”면서 “최첨단 보안강화 시스템인 ‘Five Zones Security System’으로 단지 외곽에서부터 세대 내부에 이르기까지 빈틈 없이 입주민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푸르지오포레나’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광명 14R 구역을 대표하는 원형의 공간 ‘The circle. 14’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만남을 제공해주고 있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달을 닮은 동근 정원인 ‘달빛정원’에는 석가산이 설치됐다. 바람과 폭포의 물줄기, 소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자연 속 한 가운데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형형색색의 야생화와 암석들로 조성된 ‘락락(Rock樂) 정원’과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별빛정원’이 설치돼 주민들에게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독서실, 도서관, 카페, 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외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나무를 보를 연상시키는 ‘꿈꾸는 늘보씨’와 악어를 모티브로 만든 ‘늘지대 악어’, 동화 속 한 장면을 표현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도 보여줬다. 곤충과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과 돌무더기 등을 만들어 ‘육생 비오름(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을 완성했다.

/글·사진=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① 단지 내 달빛정원. ② 육생비오름 ③ 조경. ④ The circle 14. ⑤ 별빛정원 ⑥ 테마놀이터 늘지대 악어. ⑦ 락락(Rock樂) 정원



유통가 크리스마스 인증샷 핫플 쟁탈전
니



1부개발 및 매니지먼트사업 상술 1

롯데케미칼-한전 차세대 ESS 솔루션 개발 맞손

Life

L2

노폐물 걷어내고 타이트닝 효과까지 모공패드 한 장으로 ‘쓱~쓱’

토너와 화장솜이 결합된 형태의 ‘토너 패드’ 제품은 별도로 화장솜에 토너를 적시지 않고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뷰티업계에서는 성분, 기능,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토너 패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 에이피알의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가 선보이는 ‘제로 모공 패드’는 여러 브랜드 가운데 감히 ‘국민 패드’로 불릴 정도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메디큐브는 기초 피부 관리에 집중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제로 라인’, ‘레드 라인’ 등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제로 모공 패드’는 노폐물 클리닝과 블랙헤드 등 모공 케어에 집중한 제품으로, 지난 2017년 출시 이래 큰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링 아이템이 된 제품이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노폐물, 블랙헤드 등 ‘모공케어’ 집중 2단계 양면 패드로 피벗결 정돈까지 판매량 600만개 돌파 ‘국민패드’ 등극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쓰는 저자극 제품
제로 모공 패드는 모공 속 노폐물, 피지, 각질 등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피벗결 정돈을 통한 모공 타이트닝 효과까지 한번에 경험할 수 있는 저자극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모공 축소 및 피지 분비 억제에 효과적인 ‘Anti Sebum-P’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모공 타이트닝 효과는 인체적용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두 단계에 걸쳐 피벗결을 정리할 수 있는 양면 패드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엠보싱 면은 각질 케어와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고, 반대편의 부드러운 면은 보습 효과를 통해 매끈한 피부를 유지시켜준다. 토너에 함유된 달맞이꽃 추출물, 대왕송잎추출물 등 자연 유래 추출물은 피부 자극을 낮춰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장점 덕에 제로 모공 패드는 뷰티업계에서 눈에 띄는 장수 아이템이자,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6월 기준 누적 판매량은 600만 개를 돌파했으며, 이 수치를 패드 장수로 환산할 경우 무려 4억 장에 달한다.

◆제품력 강화하고 꾸준한 마케팅

메디큐브는 제로 모공 패드의 제품력 강화를 위해 성분 및 패키징 등의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그 결과 ‘제로 모공 패드 2.0’을 탄생시켰다. 10월 기준 메디큐브 자사몰에 남겨진 제로 모공 패드의 고객 후기는 13만 개를 넘어섰으며,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4.9점에 달한다.

이는 메디큐브가 자사몰 중심의 판매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자사몰은 대형 유통 채널에 비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메디큐브 제로 라인업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



메디큐브 에이피알 부스터프로. /에이피알

다. 이 가운데 ‘제로 모공 패드 마일드’는 민감한 피부를 가진 고객을 위해 기존 제로 모공 패드를 한층 더 순화한 제품으로, 자극이 적은 PHA 성분과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성분 등을 첨가해 자극은 낮추고, 수분감은 높였다. 여기에 모공 관리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제로 모공 세럼’, ‘제로 모공 크림’ 등도 추가로 선보였다.

마케팅 효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코스메틱 라인 모델로 ‘국민 MC’ 유재석과 7년째 함께 하고 있다. 신뢰와 성실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유재석의 이미지가 ‘꾸준함’과 ‘신뢰’를 추구하는 브랜드 방침과 잘 들어맞으며, ‘국민 패드’로써 제로 모공 패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모델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민 MC’ 유재석 7년째 모델로 기용 모공패드 마일드 등 제로 라인업 강화 홈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프로’ 출시도

◆뷰티 시장 이끄는 뷰티테크 기업으로 도약

에이피알은 메디큐브를 통해 더마 코스메틱 시장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한편,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도 진출하며 뷰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효과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홈 뷰티 디바이스 ‘메디큐브 에이피알’을 론칭했으며, 더마EMS를 시작으로 ▲유췌라답샷 ▲ATS에어샷 ▲부스터힐러 ▲아이샷 ▲바디샷 등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기존 제품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차세대 뷰티 디바이스로 ‘부스터프로’를 출시하기도 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에이피알은 태생부터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제품을 선보이고자 노력했고, 제로 모공 패드는 그 대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제로 모공 패드, 뷰티 디바이스를 비롯하여 고객의 삶을 개선시키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텍사스, 창단 62년 만에 첫 월드시리즈 우승
▲‘충격패’ 뮌헨, 더 리호트 부상까지... CB는 김민재뿐 /사진 뉴시스

▲홍현석, 벨기에컵서 결승골 활약...헨트는 16강 진출
▲셀틱 오현규 시즌 첫 골...팀은 개막 11경기 무패행진



▲이정후, MLB닷컴 선정 FA 랭킹 14위...1위 오타니
▲“FA 류현진, 1년 800만 달러 계약” MLB 전직 단장 전망 /사진 뉴시스